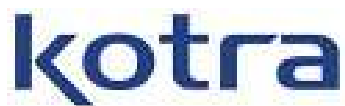


콜롬비아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1. 국가개요 /1
- 2. 정치사회동향 /2
- 3. 한국과의 주요이슈 /3

II. 경제

-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4
- 2. 주요 산업 동향 /7
-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9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10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13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16
 - 대한수입규제동향 /19
 - 관세제도 /19
 - 주요인증제도 /20
 - 지적재산권 /21
 - 통관운송 /22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25
- 외국기업 투자동향 /27
- 우리기업 투자동향 /27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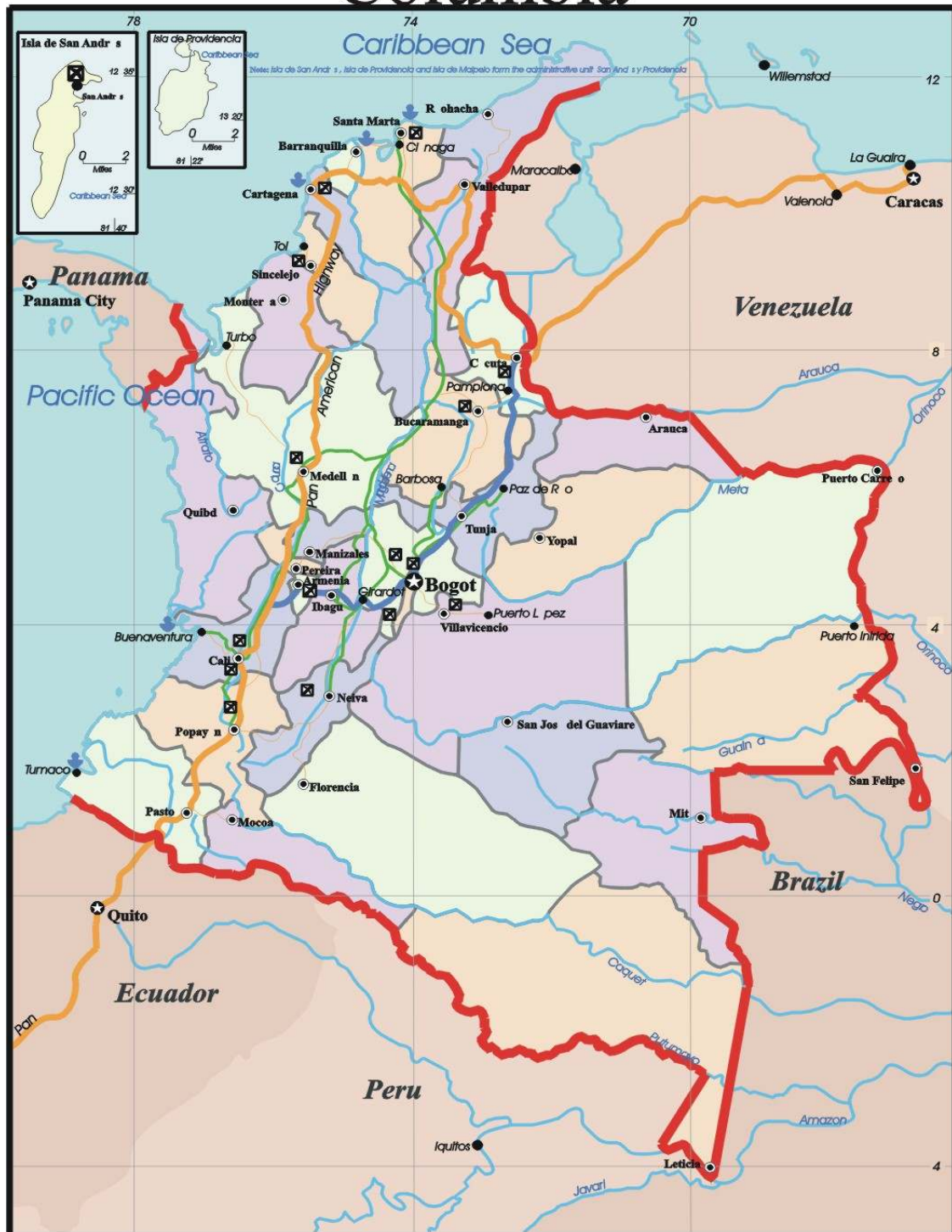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29
- 조세제도 /31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33

V. 기타 유용한 정보

- 1. 시장특성 /34
- 2. 물가정보 /36
- 3. 바이어발굴 /38
-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45
- 5. 이주정착 가이드 /48
- 6. 출장가이드 /51

Columbia



1992 MAGELLAN GeographixSM Santa Barbara, CA (800) 929-4627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콜롬비아공화국(Republic of Colombia)
위치	남미 서북부에 위치. 태평양과 대서양(카리브해)에 연해있음. 서경 66°50' ~ 동경 79°02', 북위 12°26' ~ 남위 4°13'
면적	1,141,748km ² (남한의 11.6배, 한반도의 5배 정도)
기후	열대지역에 위치해 있으나, 고도에 따라 다양한 기후대 보유
수도	보고타 (Bogota) - 현지정식명칭은 Santa Fe de Bogota
인구	42.7 백 만명('07년 1/4분기 기준)
주요도시	Bogota(631만 명), Medellin(169만 명), Cali(178만 명), Barranquilla(102만 명)
인종	메스티조(60%), 백인(20%), 몰라토(15%)
언어	스페인어(공용어), 이 외 64개의 토속어 및 방언이 사용됨
종교	카톨릭(92%), 개신교(7%), 기타
독립일	1810년 7월 20일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Mr. Alvaro Uribe Velez (알바로 우리베)
입법부	양원제 (상원 102석, 하원 166석)
주요정당	Partido de la U, Partido liberal, Partido conservador 등
정부성향	자유민주주의

나. 경제지표 (200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US\$ 1,337억
실질 경제성장률	6.8%
1인당 GDP	US\$ 3,130
실업률	11.8%
물가상승률	4.48%
화폐단위	Colombian Peso (\$)
환율	1 US\$ = \$1,980 (2007년 6월 현재)
외채	US\$ 455.0억
외환보유고	US\$ 154.3억
산업구조	서비스업(20%), 금융업 (18%), 제조업(15%), 농림수산업(14%) 등
교역규모	수입- US\$ 245억(FOB기준), 수출- US\$ 243억(FOB기준)
교역상대국	수입- 미국, 멕시코, 브라질, 베네주엘라, 중국, 일본, 한국 등 수출- 미국, 베네주엘라, 에콰도르, 페루, 멕시코, 도미니카 등
교역품	주요수입품 - 운송장비, 통신장비, 프로필렌 등 주요수출품 - 석유, 커피, 석탄, 페로니켈, 화훼류

다. 한-콜롬비아 관계

체결협정	문화협정('76), 과학기술협정('81), 사증면제협정('81), 무역협정('85), 투자 협정('96)
교역규모	US\$ 912백만 (한국수출), US\$ 205백만 (한국수입)
교역품	자동차, 합성수지, 가전제품 등 (한국수출), 커피, 금속광물 (한국수입)
투자교류	대 콜롬비아 - US\$6백2십만 내외 (한국진출), 대 한국 - 없음
교민	교민 400여명, 체류자 50여명

자료원: KOTIS 및 Banco de la Republica 중앙은행

2. 정치 사회 동향

2007년 12월 현재 콜롬비아는 알바로 우리베 대통령의 집권 제2기를 맞고 있다. 우리베는 2002년 5월 28일 5년의 임기로 국정을 운영한데 이어, 2006년 5월 28일 재선을 통해 콜롬비아 정치사상 최초로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다.

콜롬비아 양원은 2005년 5월 연임 재선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10.09 헌법 재정) 재선에 앞선 5.12 선거에서도 초당적 지지세력을 규합시켜 우리베 지지층이 득세하게 되었다.

주변국에서 유일하게 친미, 우익적 성향의 정권이 연임된 우리베 정권은 대외정책 1차 과제로써 실익 위주로의 친미 정책 기조유지와 더불어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 및 유지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대 게릴라 강경책 및 마약근절책을 통한 치안확보 및 우호적 기업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연임재선 법안 통과 과정에서 불거진 대내외 갈등요인과 최근 불거지고 있는 유력 정치인사들과 게릴라의 연대관계 등은 향후 우리베 정권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2003년 이후 콜롬비아 사회는 괄목할만한 경제 신장세와 더불어 기업 및 투자, 생활여건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자가 성장가능성 구축을 1차 목표로 추진한 우리베 식 경제모델의 성공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근간 콜롬비아 사회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치안이 확보됨에 따라 내수경기 신장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더불어 고용창출, 사회안정망 개선 등 정부의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의 결과로 국민들의 체감하는 내수경기는 훨씬 개선된 것으로 보여진다.

2007년 11월부로 좌파성향 Samuel Moreno 보고타 시장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향후 정국운영 및 기조에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적 파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Moreno 시장은 최우선 공약으로 보고타 지상 또는 지하철 건립을 약속한 바 있어 Transmilenio와의 연계방안에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콜롬비아 관계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전쟁 시 UN군의 일원으로 병력을 파견,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지원한 혈맹으로서, 군사외교적으로 한국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다. 콜롬비아 입장에서 한국전쟁 때, 5,200명의 병력과 5척의 전함, 그리고 다수의 군수품 지원은 콜롬비아 군 역사상 유일무이한 해외파병 경험으로, 매년 6월 25일은 콜롬비아 군의 주요 기념일이 되고 있다. 특히 2000년 10.23-27일 기간 중에는 한국전 5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의 날 행사를 마련, 각종 문화행사 등 양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기회를 가졌다.

60-70년대 한국경제의 도약 이후 80년대부터는 한국의 일방적인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상지원, 연수생 초청교육, 전문가 파견 등의 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Ruiz 화산폭발 및 Armenia 지진 등의 재해 발생시에도 구호품 및 구호금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 현지법인에서는 1백만 불의 기금을 출연, 한국전쟁 참전 콜롬비아군 2세를 위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한-콜롬비아 양국은 정치외교적인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무역 및 투자진흥 협정을 체결, 상호 경제교류를 증진키로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양국간 경제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교류는 미미한 실정이며, 아울러 한국측의 수출이 일방적인 수출 초가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이 양국간 통상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나. 현안사항

양국간 정치외교적으로는 별다른 현안사항이 없으며, 무역측면에서 몇 가지 현안사항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콜롬비아 정부에서 제기하는 현안사항으로, 한국의 대 콜롬비아 수출액은 수입액의 5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한국의 무역흑자가 누적되고 있다. 이러한 만성적인 무역 불균형은 다음에 기술하는 한국상품 수입규제 움직임의 기반이 되고 있다.

1) 폴리에스터 원사

콜롬비아 정부는 '98년 7월 31일부로 HS Code 540243, 540233류의 폴리에스터 원사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 최근 1년간 국가별 수입량을 기준으로 향후 1년간 수입량을 규제한다고 발표하였다. 동 조치에 따라 대만 등 WTO 비회원국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세이프가드가 발효되었으며, 한국, 미국 등 WTO 회원국가제품에 대해서는 WTO 내부절차에 따라 적용키로 하였다. 2007년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WTO에서 부적절판정을 받아 발효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또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자동차

'98년 3월 27일 콜롬비아 자동차 조립업체인 Colmotores사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규제를 정부에 요청, 한국산 자동차 수입규제 분위기가 고조된 바 있다. 결국 한국

측의 민관 사절단 파견을 통한 협의, 그리고 한국차량 수입상들의 수량 자율규제 의사 전달로 일단은 수습되었다. 그리고, '99년 말 한국산 택시의 현지 시장 범람을 우려한 현지 회사들의 제소로 한국산 택시에 대한 Safeguard가 발동된 바 있으나 최종 심의에서 무혐의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부진으로 현지 조립업체의 매출감소, 설비가동을 저하, 고용감소 등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수입규제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에 있다.

3) 타이어

'98년 4월 29일 콜롬비아 타이어 제조업체인 ICOLLANTAS S.A.사 및 GOOD YEAR S.A.사의 제소로 한국산 타이어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조사 담당기관인 대외 무역청(INCOMEX)에서는 '99년 4월 27일, 최종 보고서를 통해 한국산 승용차용 타이어에 13.75%, 그리고 화물차량 및 버스용 타이어에 30.25%의 덤핑혐의를 인정, 반덤핑관세 부과를 건의하였다. 다행히 한국업체의 적극적인 반박자료 제출 및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콜롬비아 대외무역부에서는 한국산 타이어의 덤핑혐의는 인정되지만 이의 수입규제가 자국산업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덤핑관세 미부과를 결정,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 연도별 거시경제지표

지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GDP(US\$억)	832	812	815	800	973	1,181	1,337
1인당GDP(US\$) GDP per capita	1,580	1,903	1,860	1,794	2,148	2,574	3,130
실질성장률(%) Real Growth rate	2.9	1.4	1.9	4.12	4.1	5.3	6.8
물가상승률(%) Price Growth rate	8.7	7.6	6.9	6.5	5.5	4.66	4.48
실업률(%) Unemployed rate	20.2	13.5	15.6	12.3	12.1	11.2	11.8
수출(US\$억) Export	131.2	123.0	119	131.2	167	156.3	243.9
수입(US\$억) Import	115.3	128.3	126.9	138.8	167.4	211.8	245.3
외환보유고(US\$억) Foreign reserve	88.2	101.9	108.4	109	135	197.9	154.3
총외채(US\$억) Foreign Debt	360.2	391	373.3	380.6	394.5	370.5	455.0
환율(Peso/US\$1)* Exchange Rate	2,229	2,291	2,864	2,778	2387	2,435	2,239

자료원: 중앙은행, 통계청(DANE)

□ 우리베 대통령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

2002년 5월 26일 투표에 참여한 국민 중 53.04%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1차 선거에서 콜롬비아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알바로 우리베 벨레즈 대통령은 2006년 5.28일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국민의 62% 상회하는 지지로 임기 제2기를 출범하였다.

취임기간 동안 치안 안정과 경제 부흥이라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듣고 있는 우리베 대통령은 차기 임기 동안 자신의 정책의 바뀌는 것 없이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 한다. 또한 40년 이상을 끌어오고 있는 반군 게릴라와의 성공적인 평화협상 또는 전면전에서의 승리, 뿌리깊은 마약조직과의 전쟁, 공직자부패 척결 등이 우리베의 강한 의지와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 중의 하나는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타개와 민생안정을 위한 '경제회복 및 고용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콜롬비아의 현실이다. 공식 실업률이 16%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가난에 찌들리고, 게릴라들에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국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연일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콜롬비아의 현실이다.

Uribe 대통령이 당선 직후 현지 최대 경제전문지인 La Republica지에 밝힌 경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가. 고용

2001년 당시 정부 목표치 15%를 뛰어넘는 18.2%의 공식 실업률을 우리베 정권의 임기 말기에는 10% 이하까지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년 5% 이상의 경제 성장을 견지한다는 구상이며 또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각종 공공사업 부문에 노동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는 안을 갖고 있다. 참고로 2005년 말 실업률은 약 11.8% 정도이다.

이러한 공공사업에는 도시환경미화사업 확대, 산림보호 및 개발 확충, 목화-옥수수 등 농작물 재배 활성화, 각종 문화재 산업 촉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다각적인 고용 창출 계획을 실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필요한 노동 인력이 적재 적소에 배치, 활용될 수 있도록 인력의 사회 투입 이전에 학교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나. 세금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무조건 세금을 올리거나, 추가 세금 부과와 무모한 방법은 없을 것이며, 추가 세금 부과 등의 경우에는 사전 공청회 등을 통한 신중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했다. 특히 추가세금 부담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기 보다는 탈세 등 모든 불법적인 납세 회피에 대해 단호한 처벌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 국방비

반군게릴라와의 전쟁, 각종 테러행위에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 국방비증액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콜롬비아 경제의 전반적인 위기상황 및 높은 실업률을 감안, 소위 국민자라 할 수 있는 사회계층에게는 별도의 부담이 없도록 할 것이며, 대신 공직자 부정부패, 부정축재, 탈세 등을 강력히 단속함과 동시에 국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해서도 국방비를 증액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방비의 증액 계획으로 인해 결코 국가 재정 적자가 늘어나거나 거시 경제 지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는 신중하고도 합리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라. 외채

콜롬비아의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고용창출, 사회공공사업 확충 등이 필수이므로 단기간 내 외채상환은 어려우며, 필요에 따라서는 외화의 추가차입도 고려 중이다. 대신 국제사회 및 IMF등에 콜롬비아의 정치 경제적 현실을 최대한 부각시켜 외채상환연기 또는 이자부담경감 등을 호소할 계획이다.

마. 재정

공직자 부정 부패, 탈세 등을 단호히 척결함과 동시에, 교육, 보건, 공공서비스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주요 공공 사업 이외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재정 투입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자율의 안정, 국방비의 증액, 효율적인 정부 정책 운용을 위해서도 재정 안정은 꼭 지켜져야 하며 이것이 바로 5%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의 궤도에 오르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통화 발급 관련, 우리베 정부는 중앙 은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경제가 흡수할 수 있는 필요분 이상의 통화를 발급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과오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 공공요금

대중교통, 수도료, 전기료 등 각종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금인상은 신중하고도 계층별 부의 형평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다. 무조건적인 공공요금의 동결은 중장기적으로 관련 인프라 후퇴로 인한 생산비용 확대,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도, 전기, 전화 등 공공서비스 이용 시 절약하는 자세 및 공공요금 납부기일 준수 등과 같은 대 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 기업활성화

국내외기업이 납치, 살인, 강도 등의 범죄행위에서 해방되어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민생치안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어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기업 설립 관련 각종 법규와 절차의 간소화, 투자 보장을 위한 정책적 배려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자국 중소기업의 수출진흥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수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향후 2년간 정부가 규정하는 신기술 부문 및 자본재 수입 시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또한 공공 및 민간 부문 등 다각적인 재원을 통해 벤처 자금(Fondos de Capital de Riesgo)을 운용할 계획이다.

아. 자유무역협정

콜롬비아 정부는 2007년 내 미국과의 FTA 비준 타진을 최우선 과제로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현재 공식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는 다음과 같음

-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안데안공동체)
- 멕시코 (G3)
- 칠레 (2006년)
-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2007년)

2. 주요 산업 동향

가. 전체산업동향

2005년 산업 전체의 GDP 성장률은 5.13% 성장을 기록하였다. 수산업, 부동산, 농업 등이 부진을 보인 대신, 건설업, 요식업, 도 소매업이 큰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 외 대부분의 산업이 소폭 상승하는 실적을 나타내었다. 산업 전반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했으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 2001년을 기점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제조업의 경우에도 2001년부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부문별 성장률 추이

(단위: %)

부문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산업전체 GDP Growth	1.39	1.93	4.12	4.10	5.13	6.80
농업, 목축업	2.97	0.04	3.15	2.59	3.19	3.13
수산업	11.40	4.44	2.23	0.43	4.01	0.74
광업	-8.30	-2.4	13.2	4.4	3.04	0.58
제조업	7.70	1.17	4.2	4.7	3.95	10.79
전기, 가스, 수도	1.20	2.26	2.7	2.9	3.20	3.02
건설업	1.80	12.5	13.4	9.7	12.57	14.36
상업	10.4	2.65	5.9	6.7	11.06	12.10
외식 및 숙박업	1.40	0.85	6.6	3.8	5.15	7.57
운수·보관·통신	2.10	2.83	4.3	5.0	5.08	9.42
금융중개업	-3.30	2.38	10.6	9.2	6.66	-1.72
부동산	3.90	1.2	1.31	1.21	1.17	1.40
공공 및 국방	-2.10	0.33	0.61	3.28	4.80	2.14
교육	-0.52	-4.10	0.88	0.99	0.07	1.93
복지 및 의료	-0.74	1.49	1.52	1.81	2.42	2.58

자료원: 통계청(DANE)

2006년도 5대 성장산업

연번	구분	성장률 (%)
1	건축업	+14.36
2	상업	+12.10
3	제조업	+10.79
4	운수, 보관, 물류 및 통신	+9.42
5	숙박 및 관광	+7.57

자료원: 통계청(DANE)

나. 제조업

1992년 콜롬비아 정부의 시장 개방 정책 도입 이후 제조업은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2005년 순수 민간투자액이 100억불을 초과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2005년 제조업 분야는 커피경기 회복, 소비재 생산증가, 건축업 활황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의류 및 가재 부문 침체, 농축산물 경기 하락 등의 악재가 있어 생산증가율은 3.95%를 기록하였다. 2006년도 제조업 부문은 각종 제반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10.7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최근의 가파른 경기 상승세를 반영하였다.

1) 자동차

콜롬비아 자동차 산업은 매년 약 15% 이상의 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생산량도 연간 15만대에 육박하고 있다.

주요 자동차 조립공장은 COLMOTORES(GENERAL MOTORS), COMPANIA COLOMBIANA AUTOMOTRIZ(MAZDA & MITSUBISHI), SOFASA(RENAULT & TOYOTA)등 3개사로 콜롬비아 전체 수요의 약 50%를 조립 생산하고 있다.

2) 철강

2005년 철강 산업은 연 7.2%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철강 소비는 15% 증가한 21백만 톤으로 이중 약 50%가 수입이고 나머지 50%가 국내 생산으로 충당되고 있다.

수요 중 대부분이 건축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3) 섬유

한 때 섬유산업은 콜롬비아 전체 제조산업을 대표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중국산 제품에 밀려 산업체가 장기화 되는 실정이다. 80년대 큰 시련을 겪은 뒤 새로운 기계 도입, 디자인의 컴퓨터화, 노동력 향상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혁신해 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산에 밀려 잠식당하고 있다.

4) 식료

식료 부문은 전체 산업의 12%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담배, 음료, 식품의 대외 수출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년 평균 성장률이 9%에 달하고 있다. 음료의 경우 세계 5위의 맥주 제조회사 BAVARIA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다. 관광업

콜롬비아 관광산업은 만년설에서 아마존에 이르는 다양한 기후대와 태평양과 카리브해에 면한 지리적 위치 등으로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한 게릴라 집단의 준동으로 인한 치안위협, 관광자원의 개발부재 등과 같은 요인으로 관광산업은 발전이 제한되어 왔다.

현 대통령인 Uribe집권 이후 치안이 급속히 안정되면서 미국인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의 방문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05년에는 약 83만 명의 외국인들이 콜롬비아를 방문했으며 전년 대비 약 19% 증가한 실적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치안강화를 위해 경찰력과 군대를 증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게릴라에 의한 보고타 시내 폭탄테러 이후 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고, 미국이 콜롬비아 게릴라를 테러단체로 지목하면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향후 치안확보의 성공여부가 콜롬비아 관광산업 발전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라. 농림수산업

1) 농업

콜롬비아의 전체농지는 약 5.3백만 HA이며 이중 1.0백만 HA에서 커피가 재배되고 있다. 농산물 중 커피, 바나나, 설탕, 면화, 화훼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전 통상품인 과일, 채소, 어류 등도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농목축업 부문은 커피 가격 상승 및 화훼류 수출증가로 3.13%의 성장을 달성하였다. 한편 정부는 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획(SALTO SOCIAL)으로 매년 GDP의 0.44%를 투자할 예정이다.

2) 수산업

콜롬비아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접하고 있어 다양하고 풍부한 어족이 잡히고 있다. 2005년 어획량은 80만톤으로, 이중 69만톤이 태평양 연안에서 어획되었다. 주종 수출품은 참치와 오징어이며 수산업의 GDP비중은 9.12%에 달하고 있다. 어획량 증가에 따라 관련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EU지역의 GSP 대상품목으로 수출전망이 밝은 것으로 분석된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자유무역협정 추진경과

주재국의 경제 개방 정책은 1990년대 이르러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대외교섭 관련 실무적인 경험은 안데안 공동체 가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ALADI(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 가입을 통한 회원국간 상호우대협정을 적극 활용해왔다.

1995년에 카리브공동체 12개국과 관세 우대 협정을 체결했고, 같은 해에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3국은 G3로 알려진 비대칭 관세인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향후 10년 내 3국간 동일 관세율 적용).

또한, 콜롬비아, 칠레간 경제 상호 보완 협정을 도출해 양국간 거래의 95%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고 2012년까지 관세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2005년에 MERCOSUR-콜롬비아 경제보완협정을 체결해, 자본재 유입허가를 통한 관세 및 생산 단가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며, 2006년에는 미국-콜롬비아 양국간 관세특혜조약(APTDEA) 연장에 합의했다. 2006년에는 칠레-콜롬비아간 FTA를 체결했으며, 2007년 현재 미국과 FTA 비준을 연내 준비 중이다.

나. 기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 CAN (안데안공동체) :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페루, 콜롬비아
- CAN/Mercosur 관세우호협정
- G3 : 멕시코, 콜롬비아
- 칠레/콜롬비아 FTA (2006년)
-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2007년)

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준비 국가

- 베네주엘라
- 미국
- 캐나다
- 유럽연합 등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2006년도 수출입 개요

2006년도 콜롬비아 수출은 전년도 대비 15.1% 늘어난 US\$24,391,000,000을 기록 하였으며 수출액의 51.5%가 종전 수출강세 품목이 아닌 신규 품목으로 구성된 점을 미루어 볼 때 2007년도 수출 전망치는 한층 밝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 국가별로는 종래와 다름없이 미국 및 인근 주변국과의 교역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위스, 스페인, 네덜란드, 이태리 등 유럽 국가와의 교역도 지속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칠레와의 FTA 체결, 2007년 비준을 앞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종전의 수출 구도에 한층 탄력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2006년도 주재국 수입량은 전년도 대비 23.4% 신장된 US\$24,534,000,00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현 정권 취임 이후 잇따른 각종 치안안정책 및 경기부양책에 따른 실질 구매력의 증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은 중국, 일본에 이어 수입규모 7위를 기록 중에 있으나 통신기기, 자동차 등 제3국 경유 수입품까지 합산 추정 시 양국간 교역 규모는 한층 큰 것으로 예상된다.

나. 국가별 수출입 통계

□ 2006 년도 주요 교역국가 및 교역량 (US\$FOB 기준)

연번	수출 (콜롬비아 -> 해외)	수입 (해외 -> 콜롬비아)
1	미국 (US\$10,279,123,413)	미국 (US\$7,306,354,860)
2	베네주엘라 (US\$ 3,171,568,341)	멕시코 (US\$2,128,086,469)
3	에쿠아도르 (US\$ 1,253,745,010)	브라질 (US\$1,872,430,846)
4	페루 (US\$ 700,441,796)	베네주엘라 (US\$1,444,559,500)
5	멕시코 (US\$ 613,075,169)	중국 (US\$1,329,932,704)
6	도미니카 (US\$ 585,848,823)	일본 (US\$ 806,949,424)
7	스위스 (US\$ 571,422,790)	한국 (US\$ 785,762,348)
8	스페인 (US\$ 530,183,960)	독일 (US\$ 754,589,379)
9	네덜란드 (US\$ 521,393,738)	에쿠아도르 (US\$ 689,921,771)
10	이태리 (US\$ 480,551,712)	페루 (US\$ 541,705,668)

□ 콜롬비아의 품목별 수출입

수출

(단위 : US\$백만)

Hs Code	Product	US\$ Mils	Shr %
	Total	24,391,0	
2709000000	Petroleum Oils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crude.	4,154,6	17,03
2701120010	Coking Coal.	2,513,9	10,30
0901119000	Nor roasted coffee	1,310,8	5,37
7202600000	Ferro-nickel	976,3	4,00
2710192200	Fuel oils (fuel).	917,4	3,76
7112910000	Waste and Scrap of precious metal or metals.	501,4	2,05
8904000000	Tugs and Pusher craft	459,7	1,88
0803001200	Fresh Bananas "Cavendish valery" type.	440,8	1,80
8703230090	Other vehicles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500 cc but not exceeding 3,000 cc.	391,9	1,60
2710119900	Light oils and preparations. Motor Spirit.	337,5	1,38

자료원 : DANE. Bacex. (2006년 통계치 : 11월 기준)

수입

(단위: US\$백만)

Hs Code	Product	US\$ Mils	Shr%
	Total	26,204,2	
8525201100	Telephones,	927,5	3,53
8703220090	Other motor cars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000 cc but not exceeding 1,500 cc	405,4	1,54
1005901100	Maize (Corn) for feeding.	369,3	1,40
2901220000	Propene (Propylene)	356,6	1,36
8701200000	Road Tarctors for Trailers	320,4	1,22
8802400000	Aeroplanes and other aircraft, of an unladen weight exceeding 15,000 kg	288,2	1,09
2710192100	Gasoids. Other petroleum spirits and preparations.	285,7	1,09
8528129000	Other reception apparatus for television.	263,7	1,00
3004902900	Other Medicaments for human use.	256,0	0,9
8703230090	Others carryall truck type.	255,2	0,9

자료원 : DANE. Bacex. (2006년 통계치 : 11월 기준)

□ 對 한 교역 개요 및 동향

○ 최근 5년 간 양국 간 수출입 증감추이

- 수출 (한국 -> 콜롬비아)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금액(US\$천불)	272,185	296,559	459,476	623,601	912,900
증감률	20.4%	9.0%	54.9%	35.7%	46.4%

(자료원 : KITA-한국무역통계)

- 수입 (콜롬비아 -> 한국)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금액(US\$천불)	48,905	76,143	106,339	136,795	205,533
증감률	15.7%	55.7%	39.7%	28.6%	50.3%

(자료원 : KITA-한국무역통계)

○ 양국간 5대 수출입 품목 (MTI 4단위 구분)

연번	수출 (한국 -> 콜롬비아)	수입 (콜롬비아 -> 한국)
1	승용차	합금철
2	합성수지	커피류
3	무선전화기	동과 및 스크랩
4	자동차부품	당류
5	화물자동차	소가죽

(자료원 : KITA-한국무역통계 / 교역액 기준 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품

(단위: 천불, %)

순위	MTI 품목코드	품목명	2003		2004		2005		2006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741	자동차	51,922	-21.2	168,200	224	281,982	67.7	461,238	63.6
2	214	합성수지	66,672	165.3	49,972	-25	87,357	74.8	93,889	7.5
3	812	무선통신기기	42,933	3.6	65,205	51.9	35,348	-45.8	61,865	19.2
4	742	자동차부품	20,468	29.2	36,913	80.3	32,374	-12.3	44,474	37.4
5	824	가정용회전기기	13,692	-24.2	13,944	1.8	19,697	41.3	28,193	43.1
6	613	철강판	1,658	-72.5	7,795	370.2	6,712	-13.8	18,538	175.8
7	320	고무제품	5,365	8.8	11,288	110.4	16,108	42.7	18,250	13.3
8	219	기타석유화학제품	3,102	33.1	1,046	-66.3	7,052	574.2	15,417	118.6
9	823	냉장고	6,761	-0.4	7,012	3.7	8,921	27.2	12,681	42.1
10	721	섬유 및 화학기계	3,309	32	4,355	31.6	6,081	39.6	10,296	69.3

자료원 : KOTIS (MTI3단위)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상품

(단위: 천불, %)

순위	MTI 품목코드	품목명	2003		2004		2005		2006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618	합금철 선철 및 고철	52,030	73.4	79,872	53.5	94,321	18.1	132,105	40.1
2	015	기호식품	10,582	10.9	15,883	50.1	29,116	83.3	40,825	40.2
3	622	동제품	1,882	-19.6	3,305	75.6	3,020	-8.6	18,256	504.6
4	331	가죽	455	-38.7	1,838	304	3,426	86.4	4,021	17.4
5	621	알루미늄	226	16.2	-	-	418	-21.5	1,835	339.3
6	252	종이제품	-	-	-	-	715	160,953	1,703	138.2
7	023	축산부산물	395	3,317	415	5.1	1,701	309.9	1,435	-15.6
8	441	의류	1,337	46	1,338	0.1	1,033	-22.8	1,171	13.3
9	016	농산가공품	12,965	104.6	1,639	-44.7	1,201	-26.7	1,102	-8.2
10	569	기타완구	152	66	244	60.4	441	80.5	838	90.1

자료원: KOTIS (MTI 3단위)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양국간 교역동향

우리бе 정권 이후 주재국 교역의 중심은 종전의 대서양 (유럽)에서 태평양(아시아)으로 다각화되어가는 추세이다. 콜롬비아-아시아 국가 간 교역량은 매년 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왔으며 한국과의 교역량은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그려왔다.

한국은 콜롬비아에 있어 수입 규모 기준 10권 내에 드는 핵심 교역국 중 하나이나 양국 간 큰 폭의 무역 수지차는 주재국 정부에 있어 시급한 해결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의 대 콜롬비아 수출은 차량, 통신 기기, 폴리에틸렌, 가전 기기, 타이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페로니켈, 동, 커피 등 1차 산업물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나. 한국과의 무역통계

무역수지

(단위: US\$백만)

구분	2003(증가율)	2004(증가율)	2005(증가율)	2006(증가율)
수출	297 (9.1)	456 (53.5)	627 (37.5)	912 (46.4)
수입	76 (55)	106 (39.5)	137 (24)	205 (50.2)
수지	221	350	483	707

자료원: KOTIS, * 2006년 1~12월 기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품

(단위: 천불, %)

순위	MTI 품목 코드	품목명	2003		2004		2005		2006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741	자동차	51,922	-21.2	168,200	224	281,982	67.7	461,238	63.6
2	214	합성수지	66,672	165.3	49,972	-25	87,357	74.8	93,889	7.5
3	812	무선통신기기	42,933	3.6	65,205	51.9	35,348	-45.8	61,865	19.2
4	742	자동차부품	20,468	29.2	36,913	80.3	32,374	-12.3	44,474	37.4
5	824	가정용 회전기기	13,692	-24.2	13,944	1.8	19,697	41.3	28,193	43.1
6	613	철강판	1,658	-72.5	7,795	370.2	6,712	-13.8	18,538	175.8
7	320	고무제품	5,365	8.8	11,288	110.4	16,108	42.7	18,250	13.3
8	219	기타석유 화학제품	3,102	33.1	1,046	-66.3	7,052	574.2	15,417	118.6
9	823	냉장고	6,761	-0.4	7,012	3.7	8,921	27.2	12,681	42.1
10	721	섬유및 화학기계	3,309	32	4,355	31.6	6,081	39.6	10,296	69.3

자료원 : KOTIS (MTI3단위) / 2006년 1~12월 기준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상품

(단위: 천불, %)

순위	MTI 품목 코드	품목명	2003		2004		2005		2006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618	합금철선철 및 고철	52,030	73.4	79,872	53.5	94,321	18.1	132,105	40.1
2	015	기호식품	10,582	10.9	15,883	50.1	29,116	83.3	40,825	40.2
3	622	동제품	1,882	-19.6	3,305	75.6	3,020	-8.6	18,256	504.6
4	331	가죽	455	-38.7	1,838	304	3,426	86.4	4,021	17.4
5	621	알루미늄	226	16.2	-	-	418	-21.5	1,835	339.3
6	252	종이제품	-	-	-	-	715	160,953	1,703	138.2
7	023	축산부산물	395	3,317	415	5.1	1,701	309.9	1,435	-15.6
8	441	의류	1,337	46	1,338	0.1	1,033	-22.8	1,171	13.3
9	016	농산가공품	12,965	104.6	1,639	-44.7	1,201	-26.7	1,102	-8.2
10	569	기타완구	152	66	244	60.4	441	80.5	838	90.1

자료원: KOTIS (MTI 3단위)/2006년 1~12월

다. 2007년도 한-콜롬비아 수출입 증감추이 (01-10월 집계치)

수출입 및 무역수지

(단위: US\$ 천)

구분	금액 (US\$)	증감률(%)	비고
수출	958,404	+28.4	
수입	99,385	-40.6	
수지	859,019	-	

자료원: KITA-한국무역통계

주: 2007년도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 교역량 기준 상위 5개 품목 (MTI 구분)

(단위: US\$ 천)

품목	금액 (US\$)	증감률(%)	MTI(3단위)
자동차	570,512	56.0	741
무선통신기기	60,383	15.5	812
자동차 부품	51,815	43.8	742
합성수지	45,898	-45.4	214
기타석유화학제품	17,916	55.4	219

자료원: KITA-한국무역통계

주: 2007년도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수입 교역량 기준 상위 5개 품목 (MTI 구분)

(단위: US\$천)

품목	금액 (US\$)	증감률(%)	MTI(3단위)
합금철, 선철 및 고철	36,939	-64.7	618
기호식품	26,702	-24.2	015
동제품	21,816	42.4	622
가죽	2,955	-6.2	331
알루미늄	2,749	82.3	621

자료원: KITA-한국무역통계

주: 2007년도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2007년 대한 수출입 국가 중 한-콜 교역 비중

	수출	수입
교역 비중/ 교역 국가	44위 / 238개국	72위 / 238개국
교역 규모	US\$958,404,000 (전년 동기 대비 28.4% 증가)	US\$99,385,000 (전년 동기 대비 40.6% 감소)

자료원: KITA-한국무역통계

주 1: 01-10월 집계치 / 2: 2007년도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관리제도 개황

콜롬비아는 1991년부터 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국시장을 개방하여 밀무역에 의한 만성적 지하경제를 근절하고 건실한 경제의 구축을 지향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관세의 인하, 통관 및 대외지불 절차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통합에 대비한 역외 공동관세 및 역내 관세 철폐를 위한 통상외교도 활발히 전개하여 관세의 구조와 관세율을 ANDEAN 경제통합의 구도로 맞추어 가고 있다.

현행 콜롬비아의 수입관리는 기본적으로 NEGATIVE SYSTEM을 지향하고 있으며, 상품의 분류는 HS CODE 10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수입관리의 주무기관은 상공관광부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Industria y Turismo)이며, 관세의 징수 및 통관관리는 재무부 산하의 세무관세청(DIAN: DERECCIO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에서 관장하고 있다. 즉, 수입관리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상공관광부가, 관세의 징수 및 통관관리는 재무부가 담당하는 이원적 관리 체계이다.

콜롬비아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해 수입을 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수입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 관리 제도는 사전 수입 면허 발급 및 특정 품목에 대한 인허가가 있으며, 일반 상품의 경우 수입 면허를 발급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함으로써 수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96년 2월부터 실시된 선적전 사전 검사 제도는 검사 결과에 대한 효과 감소 및 통관 간소화를 위해 '99년 8월 폐지되었다.

나. 수입 면허를 통한 수입 관리

일반상품 수입 시 상공관광부에 수입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소정양식에 상품명, 수량, 단가 등을 신고하여 수입 면허(Licencia de Importacion)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일반 적인 상품의 경우 수입면허 발급에 문제가 없으며, 면허를 발급받은 수입상은 해당상품을 승인 금액 한도 내에서 수입할 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 상공관광부에서는 수입면허 발급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수입면허 제도의 주목적은 쿼터 적용 상품의 수량 제한 및 수입 규제 상품의 반입 여부 등을 감시하는 것이며 아울러 수출국의 덤핑, 수입상의 Under Value 등을 감시하는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 간혹 상공관광부에서 수입 면허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대부분 수입상의 Under Value 시 상공 관광부에서 신고 가격과 기준 가격을 비교, 신고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하여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다. 수입인증(Certification) 제도

한편 농산물, 식품, 의약품, 무기류 등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부기관에 위생, 안전성, 규격인증 등을 인증 받아야 하며, 이들 품목의 수입시 인증서 사본을 상공관광부에 첨부하여야 수입면허가 발급된다.

수입 인증의 대상은 수입상이 아닌 수입 상품으로서 결국 외국의 수출업체가 신청 주체가 된다. 수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별로 규격 증명서, 수출국에서의 자유시판 인증서 등

다양한 서류가 요구되며, 아울러 규격 검사, 안정성 검사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1회 인증을 받아두면 해당 인증서 사본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며, 아울러 수출업체에서 다른 수입업체에 수출할 때에도 인증 사항에서 일부 기재사항만 변경함으로서 수입업체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수입 거래시 수출상은 필요 서류를 지원하고, 콜롬비아 수입 상이 자사 비용 부담 하에 인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대한 수입상의 손실은 물품 가격에 반영, 일정기간 독점권 부여 등 거래 조건에서 상쇄해 주고 있다.

라. 수입규제 품목

다음 품목은 국가 방위 산업용 목적 이외에는 수입 불허

HS CODE	품명	HS CODE	품명
2804.70.0020	황인	3102.30.0000	질산 암모늄
2834.29.0010	질산 암모늄	3102.50.0000	질산 나트륨
2834.21.0000	질산 칼륨	3102.60.0000	질산 칼륨
2834.29.0090	질산 모노메틸미아	3912.20.0000	질산 섬유소
2929.19.1000	염소산 칼륨	3601 류 전체	화약
2904.20.1000	니트로 톨루엔	3602 류 전체	폭약
2904.20.9000	니트로 셀룰로스	3603류 전체	도화선, 도폭선, 뇌관 등
2904.90.0000	니트로크로트 톨루엔	93류 전체	무기, 총포탄 및 부분품
2904.90.1000	니트로크로트 벤젠	95류 일부	무기성 장난감
2904.90.2000	팬스리이트		

또한 정부는 2007년 9월 10일 이후 세계오존층보호의 날을 맞아 오존파괴물질 사용제한 및 규제를 명문화한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으며 주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구분	화학식	명칭
Group 1 (CFC)	CFC13	CFC-11
	CF2Cl2	CFC-12
	C2F3Cl3	CFC-113
	C2F4Cl2	CFC-114
	C2F5Cl	CFC-115
Group 2 (Halon)	CF2BrCl	Halon-1211
	CF3Br	Halon-1301
	C2F4Br2	Halon-2402
Group 3 (Others)	CF3CL	CFC-13
	C2FCI5	CFC-111
	C2F2CI4	CFC-112
	C3FCI7	CFC-211
	C3F2CI6	CFC-212
	C3F3CI5	CFC-213
	C3F4CI4	CFC-214
	C3F5CI3	CFC-215
	C3F6CI3	CFC-216
	C3F7CI	CFC-217
	CCI4	TCC
	C2H3CI3	1,1,1-triclorethano

사전 수입인증 대상품목

전 수입승인 대상 품목	승인 주무기관
1960제작 또는 363천KLS이상	운항항공기 항공협회(AREONAUTICA CIVIL)
야생동물 및 그 생산품	환경부(MIN. DEL MEDIO AMBIENTE)
식품, 음료, 화장품 등 보건위생 관련품	보건부(MIN. DE SALUD)
화약, 총포류	국방부
동물 생산품, 가축약품, 사료	농수산연구소(ICA), 보건부
채소로 만든 원료, 농업용 생산품	농수산연구소, 보건부
마약류 및 환각성 화학 제품	보건부, 마약위원회
대중수송용 차량	교통부
휘발류 등 연료	광업부

마. 수입절차 개요

1) 수입허가 취득

수입업체 I/L 신청	↔	상공관광부 I/L발급
· I/L 발급 소요기간: 수입 자유 품목 1 - 2 일 / 사전 승인 품목 10 -15 일 · I/L 유효기간: 식료품 3 개월, 일반상품 6 개월		

2) 대금결제

수입업체 L/C개설 신청 (I/L 첨부)	↔	은행 통관 신청 후 3개월내 결제
-------------------------------------	---	------------------------------

3) 통 관

수입업체 통관신청 (I/L, PACKING LIST, INVOICE, B/L 첨부)	→	세관
---	---	-----------

자료원: 상공관광부, 세무관세청

4. 대한수입규제 동향

2007년 2월 현재 특별한 대한 수입 규제책은 없으나, 하기의 품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당국의 규제가 적용된다.

원산지	제한책	HS Code	규제 만기기한
중국	덤핑	9506.62.00.00	2011.03.06
중국	덤핑	6912.00.00.00	2009.12.17

5. 관세제도

가. 관세제도 개황

콜롬비아는 안데안 공동시장(Comunidad Andina)의 일원으로서, 안데안 대외 공통 관세에 준 하는 4단계 관세율 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15%이다. 관세산정 방식은 종가세 (AD-VALOREM)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관세 부과 기준은 CIF 가격이다. 콜롬비아의 품목군 별 관세율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관세율	대상 품목
기본체계	0%	국내 미 생산 원, 부자재 및 자본재
	5%	국내 미 생산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산 동물 및 식물
	10%	국내 생산되는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산 동물 및 식물 일부
	15%	국내 생산되는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야채류
	20%	최종 소비재, 육류, 어류, 우유, 버스, 미니버스, 트럭
예 외	35%	승용 승용차
	15%	화물 승용차
변동관세		농산물

한편 관세의 종류로서 일반관세와 특혜관세가 있으며, 일반관세는 별도의 협정에 의해 부여 되는 특혜관세 대상국 상품을 제외한 외국상품에 적용되며, 상기 4단계 관세율 적용을 받는다. 특혜관세의 경우 경제협력 협정에 의해 당사국간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관세율로서, 콜롬비아가 체결한 주요 경제협정 및 이에 따른 특혜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ALADI 특혜 관세: 1980년 몬테비데오 협정에 의거, ALADI(ASOCIACION LATINO AMERI -CANA DE INTEGRACION)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칠레, 파라과이,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상품에 대한 특혜 관세임
- 국가별 관세할인율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0.88/ 볼리비아:0.86/ 에콰도르: 0.72/ 파라과이: 0.66/ 칠레, 베네수엘라, 페루, 우루과이:0.08등이다.
- ANDEAN 특혜관세: 안데안 공동시장(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로 궁극적으로 ANDEAN 회원국간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당수 품목에 0% 관세율이 적용되나, 국가별, 품목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G-3 특혜관세: GRUPO DE LOS TRES(베네수엘라, 멕시코, 콜롬비아) 회원국에 대한 특혜 관세로, 품목별로 특혜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주요 품목별 관세율

관 세 율	품 목
5%	VCR, 전자오븐, 헤어드라이어, 전자부품, 기계류, 컴퓨터, 교환기
10%	철강판, 사출성형기
15%	타이어, 튜브, 섬유사, 케이블
20%	TV, AUDIO, 혼방직물, 신발, 냉장고, 세탁기, 라디오, 사무용품
35%	이상 승용차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재정 적자 보완 정책 등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는 수입 품목의 관세를 1.2% 상향 조정하는 안을 국회에 계류 중

나. 관세율 알아보는 방법

콜롬비아 관세율을 알아보는 방법은 관세율 책자 구입 또는 발간업체 홈페이지 유료 가입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그 외 현지 무역진흥공사 해당 팀에 전화 또는 내방하여 알아볼 수 있다. 관세율 책의 경우 LEGIS 출판사에서 Arancel Armonizado de Colombia란 이름으로 발간 하였으나 현재는 CD로만 구입 가능하다. 구입 비용은 US\$ 200불 내외이다.

- 서명: ARANCEL ARMONIZADO DE COLOMBIA
- 출판사: LEGIS EDITORES S.A.
- 주소: Av El Dorado No 81 - 10 Bogota, Colombia
- 전화: (1) 4255255
- 팩스: (1) 4255317
- 이메일: servicio@legis.com.co
- 홈페이지: www.legis.com.co

현지 무역 진흥 공사인 Proexport Zeiky 팀에서는 중소 무역 업체를 위해 수출, 수입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직접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관세율에 대한 정보도 입수 가능하다.

- 공사명: PROEXPORT (ZEIKY)
- 주소: Calle 28 No 13^a - 15 Piso 1 Local 8 Bogotá, Colombia
- 전화: (1) 5242015
- 홈페이지: www.proexport.com.co

6. 주요인증제도

가. 표준산업규격

법률 2330 개정1994년, 법률 20822 개정 1999년, 법률 2246 개정 1998에 의거 현지 민간 기술 표준원을 지정, 동원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국가인증제도인 ICONTEC은 크게 두 가지 업무로 나뉘어진다. 현지 제품 품질인증과 ISO 및 해외 인증 획득을 위한 대리업무이다. ICONTEC은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산업규격은 아니나 개정된 콜롬비아 법에 의거 규격 표준화 업무를 일임 받은 공공 기관 성격의 민간 표준규격 제정업체라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 기관에서 제정 한 규격이 곧 콜롬비아 산업규격으로 인정되고 있다.

제정절차는 신청업체에 한해 품질보증에 필요한 생산조건을 심사하고 제품의 품질을 시험하여 ICONTEC이 보유한 산업규격에 부합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증업체가 1,500개사 밖에 안되고 투입되는 비용 및 시간 등 번거로움과 사회 전반적으로 인증제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많은 기업들에 보급화되지 않고 있다.

나. INVIMA

화장품, 의약/의료기기를 수입 시 현지 식약청에서 발급하는 검사를 받고 식약청에 등록을 마쳐야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 대부분의 현지 소규모 수입업자들은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요구하는 서류 중에는 제품 공정과정과 더불어 상세 제조법 등의 민감한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어 제조업체의 거부감을 일으켜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속속 발생한다.

등록절차로는 수입에 앞서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품질인증 자료, 공정 및 패키징 과정, 제조법, 카탈로그 등의 자료를 주한 콜롬비아 영사관의 공증을 받아 현지 기관에 제출한다. 필요한 경우 샘플의 동봉을 요구하기도 한다. 심사비용은 약 US\$ 500달러이고 신청은 수입상/수출상 모두 가능한데 언어 및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 대부분 수입상이 진행하게 된다. 기간은 약 3~6개월 가량 소모된다.

7. 지적재산권

가. 지적재산권의 종류

콜롬비아에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어 있다.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 보호장치 및 저작권기구(Dirección Nacional de Derechos de Autor) 등을 두어 지적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서적, S/W 등 제품의 경우 고가의 정품을 사용하는 관행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일반 상가 및 대학 주변 등에서 복사본 서적 및 S/W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나. 저작권

콜롬비아의 저작권 보호는 예술작품, 저서, S/W 등을 대상으로 하며, 법률 23호(1982), 법률 44호(1993), 그리고 안데안 협정 351호 등으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S/W의 경우 정품사용자에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백업 본 1개만 복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목적의 복사는 모두 저작권자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예술작품 및 서적의 경우도 강제사항은 아니나 저작권기구에 등록을 권고하고 있다.

다.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기업부문에 적용된 지적재산권으로 발명특허, 산업디자인, 상호, 상표 등이 이에 해당되며, 산업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안데안 협정 344호(1993), 대통령령 117호(1994)로 규정되어 있다. 발명특허의 경우 신청기간 중 관련인사의 조사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될 것에 우려, 콜롬비아 상공위원회(Superintendencia de Industria y Comercio)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으로 인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0년간 권한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상호, 상표권의 경우도 상공위원회에서 주관하며, 10년간 보호기간을 부여하고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구 사과”와 같이 특정지역 상품이 타 지역 상품보다 탁월한 품질을 갖고 있을 경우, 동 지역, 동제품 생산자들에게 상호 및 상표에 해당 지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 또한 산업 재산권의 하나로 분류된다.

8. 통관/운송

가. 통관

1) 통관절차 개요

외국에서 콜롬비아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모두 보세 구역 입고 및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콜롬비아 통관 절차는 크게 보세 창고 입고 → 수입 신고 → 관세 납부 → 세관 검사 → 출고의 과정을 거치며, 과거에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이 통관 주체가 될 수 있었으나, '99년 8월부터 반드시 통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화주 및 대리인이 수입신고서(Declaracion de Importacion) 양식을 세관에서 구매하여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99년 8월부터 수입신고서 양식 사용을 폐지 하고 전산망을 통해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관사협회(SIA: Sociedad Intermediaria Aduanera) 소속 통관사에게만 고유 코드를 부여, 동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어, 사실상 접근 코드가 없는 일반인 및 기업은 자체 통관이 봉쇄된 상태이다.

한편, 일반 수입 상품의 통관 기한은 물품 도착 후 2개월 이내이며, 2개월 내 통관을 완료 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창고 이용료뿐만 아니라 누진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콜롬비아에서 통관 절차는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2-3일이면 가능하나, 현지 통관사들조차도 콜롬비아 통관 절차를 Tramitologia(통관학)로 부를 정도로 관료주의, 무원칙이 만연 하여 통관사를 고용하더라도 기간은 1주일 이상 잡아야 한다. 관세 납부(지정 은행) → 세관에 통관 신청(관세 납부 필증, I/L, packing list, invoice, B/L 첨부) → 세관에 선적 서류 및 관세 납부 영수증 확인 → 화물 확인(보세 창고) → 세관사(보세 창고) → 출고

2) 수입신고

수입물품 통관절차는 수입신고에서 시작되며, 통관사 협회 전산망을 통해 필요정보를 입력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에 기재되는 사항은 수입상 상호 및 주소지, 수입목적, B/L 번호, 물품 내역, 물품의 상품코드, 수량, 단가, 중량, 보험료 및 운송비, 원산지, 납부세액 등이다. 전산망을 통한 수입신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 세관에서는 접수결과를 통보하며, 이때 전산 입력 내용을 출력하면 이것이 수입신고서 역할을 하게 된다. 만일 기재사항 미비 혹은 오류가 있을 경우, 세관에서는 동 신고서를 반송시키며, 재입력을 요구한다.

3) 관세납부

수입신고 후 접수 통보가 오면 입력 내용을 출력하여 기재된 세금과 부가세(16%)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달러로 기재된 세금을 당일 시장 대표 환율로 페소화로 환산하여 세관에서 지정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 납부 기한은 물품 도착 15일 이전부터 도착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4) 물품검사 및 출고

관세 납부가 끝나면 수입 신고서(전산 출력물) 및 관세 납부 증명서와 함께 제반 수입서류(상업 송장, 운송 서류, 원산지 증명, Packing List, 위생증명서 등 품목에 따라 소요되는 기타 서류)를 보세 창고에 제출, 물품 인도를 요청한다. 보세 창고에서는 사전에 해당 수입신고서를 전산망으로 접수받으며, 전산 임의 추출에 의해 물품 검사 대상 여부가 같이 통보된다. 물품 검사 대상으로 통보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원이 수입 서류와 물품을 일일이 대조하는 실물 검사를 거치게 되며, 비 검사 대상 물품의 경우 실물 검사 없이 바로 출고가 허가된다.

나. 운송

1) 주요항구 및 공항

□ 주요항구

- 태평양 연안: Buenaventura, Tumaco, Barranquilla
- 카리브 연안: Cartagena, San Andres, Santa Marta, Turbo

□ 주요 공항

Arauca, Armenia, Bogota, Bucaramanga, Cali, Cucuta, Florencia, Girardot, Honda, Ibague, Ipiales, Leticia, Manizales, Medellin, Monteria, Neiva, Palmira, Pasto, Pereira, Popayan, Providencia, Quibdo, Riohacha, Sincelejo, Tunja, Valledupar, Villavicencio

2) 운송비용

운송방법	용량	출/도착 항구	금액		
MARITIMO Intersagos.a	Container 40 feet	BUENAVENTURA - PUSAN	US\$ 2.176		
MARITIMO DHL DANZAS	Container 40 feet	PUSAN - BUENAVENTURA	US\$ 3.856		
AEREO Intersago S.A.	Per kg	Bogotá - Seoul		AIR CANADA	LUFTHANSA
			Minimum	USD125.00 upto 20 kg	
			Normal	USD 6.20	USD12.37
			+ 45 Kg.	USD 5.60	USD 6.16
			+ 100	USD 3.10	USD 3.58
			+ 500		USD 2.80
			F.S.	USD 0.35 Por cada Kilo	USD 0.40 Por cada Kilo
			D.C.	USD 25.00 Valor único del envío	USD25.00 Valorúnicodel envío
			D.A.	USD 40.00 Valorúnicodel envío	USD40.00 Valorúnicodel envío
AEREO DHL DANZAS	Per kg	Seúl - Bogotá		DHL DANZAS	
			Minimum	USD 81.75 upto 10 kg	
			11-44 KG	USD 5.73	
			+ 45 Kg.	USD 5.39	
			+ 100 Kg.	USD 4.69	
			+ 300 Kg.	USD 4.52	
			+ 500 Kg.	USD 4.35	
			F.S.	USD 0.50/kg	
			SSC.	USD 0.17/kg	

3) 주요 운송 및 통관회사 리스트

☐ 해상 및 항공 운송회사

- INTERNACIONAL SAENZ GOMEZ LTDA. INTERSAGO LTDA.
 - Add: Cra. 97 #24C-51, Bod.9 – Bogota
 - Tels: 571-4223373 – 4185919
 - Fax: 571-4223156
 - Web site: www.intersago.com
 - e-mail: franciscoucros@intersago.com
- TRANSBORDER LTDA.
 - Add: Cra. 7 # 17-51 P. 11, OF. 1102, Centro – Bogota
 - Tels: 571-3275330 – 3416477
 - Fax: 571-2815409
 - Web site: www.transborder.com.co
 - E-mail: jgarces@transborder.com.co , pcarrion@transborder.com.co
- ALMAGRAN CARGO S.A. ALMACARGO
 - Add: Cra. 37A # 8-43 Ofc. 801 – Medellin
 - Tel: 574-3122828
 - Fax: 574-2663391
 - Web site: www.almagrancargo.com
 - E-mail: dianas@almagrancargo.com
- KN COLOMBIA CARGO S.A.
 - Add: Av. Eldorado # 98-51 Ofc. 203 – Bogota
 - Tel: 571-4227660
 - Fax: 571-4131010
 - Web site: www.kuehne-nagel.com
 - E-mail: info.colombia@kuehne-nagel.com
- EUROLATINA SHIPPING Y CHARTERING LTDA.
 - Add: Cra. 51B # 76-136 Ofc. 606 – Barranquilla
 - Tel: 575-3688855
 - Fax: 575-3684042
 - Web site: www.eurolatina.com
 - E-mail: ebravo@eurolatina.com.co

☐ 통관회사

- ADUANAS AVIA LTDA. S.I.A.
 - Add: Cll. 24B, 102-22, Bogota
 - Tel: 571-4221000 – 4131788
 - Fax: 571-4154261
 - Web site: www.aviacarga.com.co
 - E-mail: alvaro.galeano@aviacarga.com.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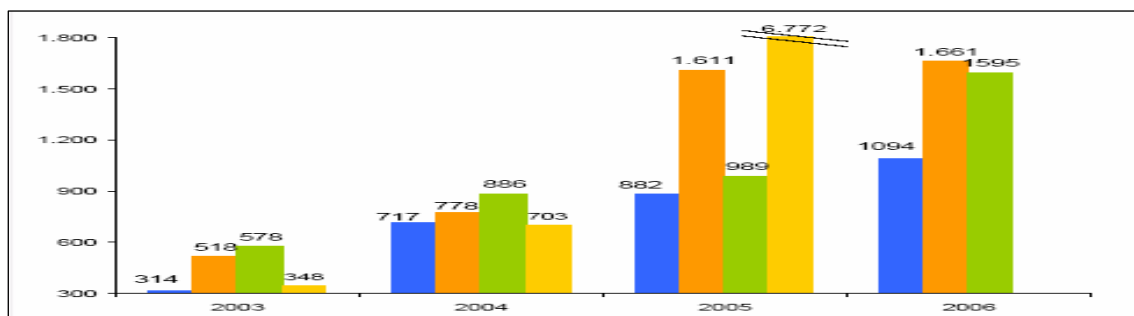
- KN COLOMBIA ADUANA S.I.A. S.A.
 - Add: Av. Eldorado # 98-51 Ofc. 203 – Bogota
 - Tel: 571-4227660
 - Fax: 571-4131010
 - Web site: www.kuehne-nagel.com
 - E-mail: fernando.guzman@kuehne-nagel.com
- REPECEV SIA S.A.
 - Add: Av. Cra. 97 # 24C-23 Bdg. 22 Muelle Industrial, Bogota
 - Tel: 571-4222377
 - Fax: 571-4222380
 - Web site: www.repecevsia.com
 - E-mail: subgerenciacomercial@repecevsia.com
- ROLDAN S.I.A. S.A.
 - Add : Cra. 100 # 25B-40 – Bogota
 - Tels: 571-4132626 – 4042904
 - Fax: 571-4132659
 - Web site : www.roldansia.com.co
 - e-mail: sialider@roldansia.com.co
- SOCIEDAD DE INTERMEDIACION ADUANERA PROFESIONAL S.A. – SIAP S.A.
 - Add: Diag. 24C # 96-72 – Bogota
 - Tel: 571-4010520 – 4049280
 - Fax: 571-4131211
 - Web site: www.siap.com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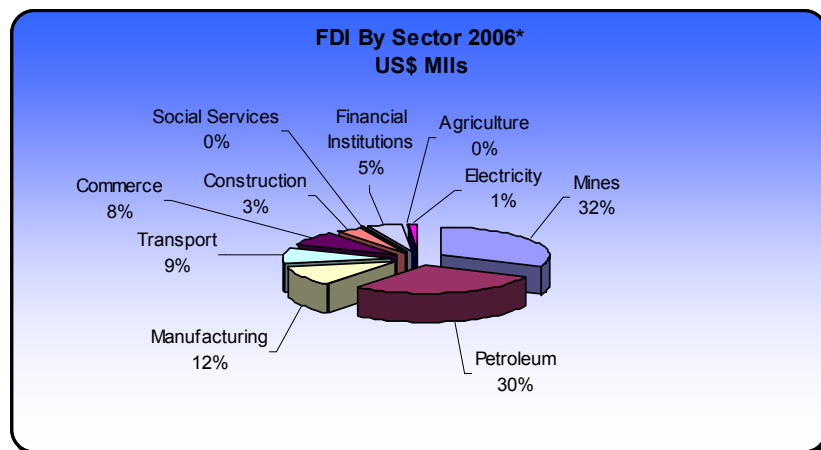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육성책에 힘입은 콜롬비아 투자환경은 2004년을 기점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 중이며 2006년의 경우 3/4분기까지의 투자 유치 규모가 최근 수년 대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차년도 투자유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자료원 : Proexport)

부문별 투자규모를 볼 때 광업, 석유 등의 신장세가 두드러지며 제조, 운수, 건설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광업 : 32.04%, 석유 : 29.60%, 제조 : 12.04%)

	2006	2005	2004	2003	2002
Mines	1,394	2,165	1,246	627	466
Petroleum Sector	1,290	1,236	463	321	424
Manufacturing	524	5,538	256	326	314
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s	414	1,001	481	-47	345
Commerce, restaurants, and Hotels	350	304	202	222	116
Construction	152	155	74	-8	-4
Social Services	22	-19	-6	40	31
Financial Institutions	227	244	244	243	293
Agriculture, and Livestock, fishing, forestry and hunting	17	4	3	8	-5
Electricity, gas and water	-46	-251	88	68	135



(자료원 : Banco de República / 2006년도 통계치는 3/4분기 기준)

나. 2007년 투자 유치 긍정적 요소

GE Money, JP Morgan, Standford Financial Group, Deutsche Bank 등 해외 금융기관 진출 및 인수합병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보고타를 위시한 Cali, Medellín 등 주요 도시 굴절버스 시스템, 공항 현대화, 도로 등 기간 시설 확충 및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가 개시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법령 개정, 기업 소득세 감면, 송금수수료 면제 등이 추진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안 경제위원회(ECLAC)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04년 사이 콜롬비아가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및 베네수엘라와 함께 외국인 투자가 가장 활발한 중남미 국가로 조사되었다. 또한 안데안 국가 중에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가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지로 뽑히고 있다.

이는 최근 콜롬비아의 대부분 거시경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콜롬비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치안문제 역시 정부가 강력한 반군토벌 의지를 피력하고 이에 따른 강경 정책이 펼쳐고 있어 점차 치안이 안정되고 있어 외국인에게 신뢰를 주고 있어 외국인 투자 유입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 유입 현황

(단위: US\$ 백만)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2,333	2,114.5	1,801	3,052	10,255	4,350	2,590

(자료원 : Proexport, 2006년 통계치는 3/4분기 집계치)

경제위기를 겪던 2002년과 2003년에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3년 18억 불 가량이던 외국인 투자금액이 2004년 경기 안정이 본격화 되면서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 2004년 말에는 총 유입금액이 약 170% 가량 증가한 30억불에 달하였다.

주요 투자기업으로는 Compaq, 3M, Energizer, Continental Airlines, Delta Airlines, Exxon Mobile, Ford Motor, GE, Gillette, HP, IBM, Intel, Liberty Seguros, Kellogg, Pfizer, Procter & Gamble, Toshiba, Merck, Sofasa(Mitsubishi, Toyota, Reno) 등을 꼽을 수 있다.

투자금액은 철저한 비공개로 입수가 불가능하나 금융업, 자동차 조립공장, 제약공장 부문의 투자 금액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별로 보면 광업, 원유개발, 제조업으로의 투자가 전체 투자금액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국별로는 중미와 카리브 해안 국가들과 미국이 각각 전체 비중의 42.5%, 22%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뒤를 이어 버뮤다, 영국, 스페인, 파나마가 잇고 있다.

3. 우리기업 투자동향

콜롬비아의 우리나라 투자는 사실상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반군과의 오랜 대치로 인한 사실상 내전상태, 마약 제 1위 수출국, 살인 및 납치 세계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 인해 콜롬비아에 대한 한국의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 못한 바에 기한다.

1991년 콜롬비아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전면 개방 이후 국내 기업들의 콜롬비아 진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일부 대기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12월 현재 콜롬비아에는 삼성 LG전자를 위시한 판매법인 5개사와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합상사, 현대자동차(이상 지점형태) 등 총 8개사가 진출해있다.

연번	업체명	취급품목
1	두산인프라코어	건설용 중장비
2	레오콘코리아	레진 및 자동요금징수시스템
3	삼성전자	가전 및 IT품목
4	LG전자	가전 및 IT품목
5	현대종합상사	일반
6	현대자동차	상용 자동차
7	스카이젠	휴대전화 단말기
8	세라젬	마사지 치료기

개인투자자 제외, 대기업 진출현황을 보면 현대종합상사, LG전자, 삼성전자,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자동차 등 5개사에 그치고 있으며 콜롬비아 투자 총액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 정권인 Uribe 대통령의 집권 이후 치안안정과 내국기업 동등대우, 세제혜택, 과실송금 자유화, 간소화 된 투자절차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 우호적인 여러 가지 투자유치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콜롬비아 시장뿐만 아니라 자유협정이 곧 발효될 미국시장 및 지역 경제블록인 G3, 안데안 국가로의 진출까지 고려하여 콜롬비아를 하나의 교두보로 활용, 투자를 고려할 것을 권한다.

한국의 콜롬비아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US\$ 백만)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3.7	-0.4	2.9	0.2	3.1	5.2	-	9.7	0.1	-	-
총 24.6 / 비중 0.1%										

자료원: Banco de la Republica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콜롬비아 외국인 투자유치 2대 원칙

- 내국인과 동등한 절차 보장
- 투자 부문 및 범위 무제한 (방위산업, 유해물질 제조 등 일부 부문 제외)

나. 투자유치 제한 또는 사전 승인요 부문 (주재국 정부가 규정하는 공공이익 부문)

- 방위산업
- 유해물질 제조 및 유통
- 금융 및 보험
- 자원개발
- TV 중계 등

다. 투자 인센티브

당국 방침 확정 즉시 지급 게재 예정

5. 노무관리

가. 고용

콜롬비아에 특별한 고용 절차는 없으며 신문 광고, 대학 추천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 하고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고용 절차가 끝난다. 콜롬비아 노동법상 만 18세 이상이면 자유롭게 고용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의 노동 희망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신청으로 노동관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노동이 가능하다.

고용계약서에는 업무의 종류와 업무장소, 급여수준 및 지불방법 등 근로조건, 그리고 수습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콜롬비아에서는 2개월까지 수습기간이 인정되며 수습기간 중에는 일방의 의사에 의해 사전 통보 없이 계약파기가 가능하다.

콜롬비아는 노동자 중심의 노동법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종업원의 해고 등에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 불법해고 시 퇴직금보다 많은 벌금을 물리고 있어, 다수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체의 경우 전문 노무담당 고용, 혹은 전문 변호사와 시간제 계약 등을 통해 고용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나. 인력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제3위의 인구규모를 보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력의 질에 있어 단순/비숙련 노동력은 풍부하고 임금도 저렴한 반면, 전문 기술 보유자, 영어 구사자 등 기능 보유자의 경우 높은 보수를 요구하고, 대상자 물색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다. 임금

콜롬비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임금지수는 최저임금으로서 '07년의 경우 최저임금은 484,500 페소(US\$269 / US\$1=COP1,800). 최저임금은 매년 연말에 해당년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 정부, 기업, 노조대표간 협상을 갖고, 협상결과를 통해 다음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권한은 최종적으로 정부에 있다.

직종별, 직위별 임금수준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단순 비 숙련 노동자의 경우 월 200불 수준에서 고용이 가능하나, 전문기술 보유자, 혹은 직원을 관리하는 책임자급의 경우 부문별로 월 2,000~3,000불 수준, 그리고 중견기업의 전문 경영인의 경우 월 10,000불 이상 급여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에서 근로자 고용 시, 기업 규모에 따라 임금 외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세[사회 보장 제도 참조] 납부가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외에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보조, 다수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보험 등이 의무화되어 있어, 평균적으로 종업원 급여의 50% 정도가 임금 외 비용으로 추가로 소요된다.

임금 외 혜택과 관련, 콜롬비아 근로자는 연간 근무일 기준15일의 휴가를 보장받으며, 주말을 감안하면 3주, 이를 연휴와 연결하면 거의 1달 가까이 휴가를 부여 받는다. 따라서 근로자 고용 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라. 외국인 고용

종업원 10명 이상의 기업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는 전체 근로자의 10% 이내이다. 기업 특성상 법정한도 이상의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노동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콜롬비아 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콜롬비아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노동조건, 급여수준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차별대우가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콜롬비아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콜롬비아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 보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마. 법정 인건비 구조

기본월급 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복리후생으로는,

- 유급휴가: 매년 직원에게 working day 15일 제공, 남은 휴가는 연말에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
- 퇴직금: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나눠 한달 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연 1회 지급해야 한다.
- 퇴직금 발생이자: 퇴직금 한달 분에 대한 이자 12%를 퇴직금과 함께 해당연도 12월말까지 지급한다.
- 상여금: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한달 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1회 또는 2회에 나누어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법정 사회보장세
 - 연금: 납부요율은 총 표준 소득 월액의 16.50%로 본인이 4.125%, 고용주가 12.37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한다. 또한 연간 소득이 법정 최저임금 4~15배 사이인 경우 추가로 1%를 연금 공단에 의무적으로 기부하게 되어있다. 이 때에도 사용자와 본인 부담이 위와 동일하다.
 - 건강보험: 납부요율은 총 표준소득월액의 12.50%로 본인부담이 4.00%, 사용자가 각각 8.50%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다.
 - 산재보험: 전액 고용주가 부담하며 보험요율은 업종별 요율(보험사 고시)에 따라 소득의 0.52222%~6.96%사이에서 납부된다.
- 공공기금(가족보조기금): 모든 기업체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가족보조기금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월 급여의 9%를 납부해야 한다.

구 분	고용주 (%)	피고용주 (%)	소계 (%)
의료보험	8.5	4.0	12.5
연금보험	12.375	4.125	16.5
산재보험	0.522	0	0.522
공공기금	9.0	0	9
합 계	30.397	8.125	38.522

바. 법정 근로시간

- 법정 기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초과 근무 시 지급률은 주, 야간, 휴일에 따라 요율이 틀리며 1일 2시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 근무할 수 없다. 또한 빈번하고 지속적인 연장 근무 시에는 고용주가 사전 또는 사후에 노동부에 연장근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평일 주간: 시간당 임금 +임금의 25% 추가지급
 - 평일 야간: 시간당 임금 +임금의 75% 추가지급
 - 지속 야간근무자: 시간당 임금 +임금의 35% 추가지급
 - 휴일 주간: 시간당 임금 +임금의 75% 추가지급

6. 조세제도

가. 조세제도

콜롬비아에서는 세금 부과 주체에 따라 중앙 정부세(국세), 주 정부세 및 시 정부세 등 3가지 형태의 세금이 부과된다. 콜롬비아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기업도 상기 조세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주요세금으로는 소득세, 부가세, 재산세, 수입관세, 사회보장세(연금, 보험) 등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제반 세금의 징수 등 세무업무는 세무관세청 (DIAN: Direccio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는 상기 주요 세금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특별입법을 통한 한시적 세금제도를 보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98년 말 금융시스템 위기극복 및 Armenia 지진 피해 복구 자금 확보를 위한 특별세(은행거래세) 0.2%가 1998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된 적이 있으며, 아울러 정부의 게릴라와의 평화협상 진전에 따라 게릴라의 사회복귀 등 게릴라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을 평화세(Bono de Paz) 명목으로 2000년부터 징수하고 있다.

나. 주요세금

1) 법인소득세

기업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기업매출액에서 제비용, 환급, 할인 등을 공제하여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세율은 35%이다. 한편 기업의 투자 확대, 특정 산업 진흥 등의 목적으로 법인 소득세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할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의 법인소득세 면제(약정기간 중)
- 기업의 수출활동에 따라 환급 받은 관세액의 35%까지 법인세 납부금 할인
- 제조업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자본재 및 컴퓨터 구입, 구매 확정 방식 리스 계약으로 자본재 구입, 기초산업용 기계류 구입시 납부된 부가가치세 부분만큼 소득세에서 할인
- 콜롬비아 법인의 해외수익에 대해 외국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소득세에서 할인

2) 기획소득세

정상적인 재화 및 서비스판매 등 영업을 통한 수익이 아닌 특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35%이다. 기획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주요 수익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자산매각, 기업청산 등을 통한 소득
- 유산, 증여, 기부 등 일방적인 소득
- 복권, 경마 등을 통한 투기성 소득

3) 개인소득세

기업 활동이 아닌 피고용자로서 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큰 차별을 보이고 있다.

- 1,100천 페소 미만: 급여의 0.09%
- 1,200천~1,250천 페소: 급여의 2.04%
- 2,001천~2,050천 페소: 급여의 9.80%
- 3,001천~3,050천 페소: 급여의 16.15%
- 4,001천~4,050천 페소: 급여의 19.34%
- 5,001천~5,050천 페소: 급여의 22.4%

4) 배당소득세

외국 거주 투자가의 투자금에 대한 배당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7%이다.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외국 투자가의 이윤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 수익을 콜롬비아에 재투자할 경우 소득세 부과를 보류하며, 재투자 기간이 5년을 넘을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항을 신설 하였다.

5) 송금세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무형의 상품을 수입하여 발생하는 대금 지불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7%이고, 주요 부과 대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외국기업에 지불하는 커미션, 로열티
- 외국영화 수입방영 수입 중 외국 수출업체 지분
- 컴퓨터 S/W 로열티

예외적으로 배당 소득세는 이미 7% 세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송금세는 면제되며, 아울러 외국 차입금에 대한 이자 송금 시, 그리고 외국에서 이루어진 기술 자문 서비스 등에 대한 비용 송금 시에도 송금세가 면제된다.

6) 부가가치세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 일반 상품에 대해 16%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한편 의료, 교육, 농산물 등 품목에는 부가세가 면제되어 있으며, 항공권에는 10%가 부과 되는 등 품목별로 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전 Pastrana 정부에서 임기 중('98~2002) 부가세 16%를 12%까지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7) 기타

기업의 계약 공증, 등록 등에 인지세 및 등록세 등이 부과된다. 인지세는 4,890만 페소를 넘어 서는 거래 중에서 서류 공증, 관공서 인증, 은행 신고 등이 수반되는 거래에 대해 거래 금액의 1.5%를 세금으로 부과하며, 해당 공증 기관이 수납 기관이 된다. 한편 개인의 부동산 등록 (가 치의 0.5~1%), 기업의 상공회의소 등록(자본금의 0.3~0.7%)시 등록세가 부과된다.

다. 기타세금

1) 영업세

지방 정부에서 지역 상공 활동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지역마다 세율, 납기 등이 상이하며, 대체로 반기 별로 영업수익의 0.2~1.0%의 세금이 부과된다.

2) 재산세

행정 구역 내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정부 산출 가치(공시지가와 유사)기준 지역별로 0.1~1.6%까지 부과된다. 재산세는 연간 1회 부과되며 일정기한 내 납부하면 최고 15%까지 세금 할인이 이루어진다.

3) 자동차세

지방 정부에서 자동차 번호판 발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 보유세로, 125cc 미만 이륜 자동차, 트랙터, 건설 장비, 영업용 자동차 등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 1회 세금이 부과되며 일정 기한 내 납부하면 세금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 정부에서는 자동차 모델, 연식, 배기용량 등을 기준으로 차량별 기준 가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준 가격별 세율을 보면 2,000만 페소 미만 차량에 대해 1.5%, 2,000만~4,500만 페소 차량에 2.5%, 그리고 4,500만 페소 이상 차량에 대해 3.5% 세금이 부과된다.

4) 기타

이 외 지방정부에서는 필요에 따라 가솔린, 기타 유류제품 등에 국세 이외의 지방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보고타 시 지역에서 부과되는 가솔린 지방세는 20% 수준에 이른다.

7.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콜롬비아는 자유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남미국가 중 비교적 건실한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4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유망수출시장이다. 80년대 중남미 외채 위기 에도 불구, 채무 모라토리움 선언이나 하이퍼-인플레이션 경험을 갖고 있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이기도 하지만 마약자금 유입으로 달러화가 풍부하여 안정적 환율운영이 가능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콜롬비아에는 연간 US\$ 10억 내외의 마약자금의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부분은 돈세탁을 위해 무역 및 투자형태로 콜롬비아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콜롬비아 마약 달러는 밀수, 그리고 건축 및 금융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94년 이후 당시 Samper 대통령의 마약단속과 함께 콜롬비아 경기가 냉각된 것은 콜롬비아의 지하경제 의존도를 반증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콜롬비아 금융시스템은 재무부와 함께 독립기관으로서 중앙은행(Banco de la Republica)이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장치로서 일반 금융기관의 업무를 감시하는 은행감독원(Superintendencia Bancaria), 그리고 은행 이용자들에게 은행의 신뢰를 보증하는 금융보증기금(FOGAFIN: Fondo de Garantias de las Instituciones Financieras) 등이 설치되어 있다.

외환의 경우 중앙은행이 콜롬비아 금융시스템 전반 및 외환 시장을 감독하고 있다. 자유 변동 환율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필요 시 중앙은행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폐 발행 권한을 통해 통화 공급을 조절하고, 재할인율을 통해 시중 금리를 조정하며, 아울러 이자율 및 외환 보유고 등을 활용, 폐소화의 환율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시장규모

콜롬비아는 4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 인구 측면에서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제3위의 시장이며,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와 함께 안데안 공동 시장(Comunidad Andina)을, 멕시코와는 G-3협정을 통한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이들 협정국을 포함할 경우, 인구 2억의 거대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콜롬비아 수입 시장 규모는 '92년 수입 개방 이후 지속 증가세를 기록, 현재 연간 US\$ 150억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주 수입품목은 자본재 및 공산품 소비재이며 주 수입원은 미국(42%), 중남미(23%), EU(16%) 등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은 아직 크지 않은 실정이다.

나. 시장특성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비교적 건실한 경제 구조를 유지하며, 80년대 중남미 외채 위기에도 불구하고, 모라토리움 위기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은 나라이다. 부정적인 측면이기는 하지만 마약 자금 유입으로 달러화가 풍부하여 안정적 환율 운영이 가능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안데안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산업 기반을 보유한 국가로, 섬유, 플라스틱, 자동차, 타이어, 철강, 화훼류, 커피 등의 산업은 수출 산업으로 인정될 만큼 제조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재 및 내구성 소비재의 수입 의존도는 90%에 이른다.

지역별, 계층별 소득 격차가 심각하여, 상품 시장의 경우도 고가와 저가 시장으로 양분되어 중질, 중가품 시장 형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가 시장에서는 선진국 브랜드 제품이, 서민을 상대로 한 저가 시장에서는 중국 및 동남아산 상품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지하 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 수입품의 30% 내외가 밀수품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주로 오디오, 비디오, 의류, 신발, 주류, 담배 등이 밀수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이 외 일반 상품들도 밀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밀수단속의 부정적 효과, 정부 관료의 밀수 결탁 등 부패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도시마다 San Andresito라는 대규모 밀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하 경제의 또 다른 모습은 마약 달러의 유입으로 나타나고 있다. 콜롬비아에는 연간 US\$ 10억불 내외의 마약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 부분은 돈세탁을 위해 무역 및 투자 형태로 콜롬비아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콜롬비아 마약 달러는 밀수, 그리고 건축 및 금융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94년 이후 당시 Samper 대통령의 마약 단속과 함께 콜롬비아 경기가 냉각된 것은 콜롬비아의 지하 경제 의존도를 반증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다. 무역거래의 특징

일반 무역 거래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92년 전면적 수입 개방 이후 일반 소매점까지 수입에 가세하여 기존의 수입상→도매상→소매상으로 이어지는 유통구조가 붕괴되었고 따라서 규모 있는 수입상 발굴이 쉽지 않다. 그리고 높은 금융 비용 및 세금 포탈의 목적으로 신용장 거래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Under Value에 대한 요청도 일반적이다.

또한 현지인들의 수입 경험이 일천하여 한국에 대해 아직 지리적, 심리적 원격성을 느끼고 있으며, 단순 서신, 팩스 등으로 거래 성사가 이루어지기에 어려움이 많으며, 지속적인 방문 및 대면 상담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대부분 품목에 있어 가격 경쟁은 치열하지 않은 반면 소량 주문이 일반화되어 있어, 콜롬비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초기 소량 주문 수용 및 점차 수입상을 키워가는 장기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2. 물가정보

□ 도시 : 보고타(콜롬비아)			- 환율 : US\$1 = Peso 1,900.00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350	7.1	구두(1켤레, 소가죽)	42
1.2	넥타이(1개, 실크100%)	16	7.2	치약(150g, 1개)	2.6
1.3	와이셔츠 (1벌, 면100%, 긴팔, 흰색, 현지브랜드)	63	7.3	칫솔(1개)	3.1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8	7.4	면도기(1세트)	0.7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	7.5	건전지(1세트, 1.5V AA)	3.1
1.6	스타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8	7.6	화장지(1통, 300매)	7.3
1.7	청바지(Levi's)	85	7.7	비누(1개)	1.0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7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3.1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5.7	8.2	볼펜(12개)	6.3
2.3	닭고기(1KG, 생닭)	5.2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3.1
2.4	쌀(1KG, Short Grain)	1.5	8.4	공CD(1통, 12개입, 700MB)	6.3
2.5	밀가루(1KG)	1.0	8.5	휴대폰(범용형)	105
2.6	설탕(1KG, 백설탕)	1.0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42
2.7	계란(30개)	4.2	8.7	인터넷가설비(1회최초, 1회설치)	-
2.8	감자(1KG, 현지산)	5.2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26.3
2.9	미네랄워터(1.5ℓ, Cristal 1Pet)	1.5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26,315
3.1	고추장(1Kg)	9	9.2	엔진오일(1L)	6.3
3.2	된장(1Kg)	5	9.3	휘발유(1L)	1.4
3.3	라면(1개)	1.5	9.4	자동차등록비(2,000cc)	315
3.4	설탕탕류(1인분, 설탕탕, 곰탕 등)	8	9.5	자동차보험료(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947
3.5	불고기(1인분, 200g)	12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10	10.1	지하철(1구간)	0.6
3.7	김치찌개(1인분)	8.5	10.2	시내버스(1구간)	0.6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1.5
4.1	햄버거(1개)	2.6	10.4	택시(추가요금/Km)	0.28
4.2	피자(1판)	10.5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0.6	11.1	전화개통비(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1.0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10.5
4.5	담배(수입산, 1갑)	1.6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 평상)	0.05
4.6	위스키(1병, 750ml)	39.4	11.4	공중전화(1분, 시내 평상)	0.10
4.7	커피(1병, 175g)	2.8	11.5	국제전화(현지-서울, 3분, 평상)	3.6
	5. 주택(150㎡)		11.6	국내우편(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7
5.1	[임차] 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urnished)	1,620	11.7	국제우편 (일반편지, 1통, 10g 이하, 현지-서울)	14.5
5.2	[임차] 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850	11.8	특급우편 (DHL, 1개, 1Kg 이하, 현지-서울)	78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3.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4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2.5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0.2
6.1	TV(29인치, 칼라, 범용)	263			
6.2	VTR(6헤드, 범용)	-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105			
6.4	전자레인지	131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684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440			

□ 도시 : 보고타(콜롬비아)			- 환율 : US\$1 = Peso1,900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3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 급여)	269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	18.2	상여금(월 급여 대비%, 연간)	1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11,375	18.3	사회보장부담금(월급여대비%,연간)	31%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6,200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15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6,350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86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6,350	18.6	연간국경일	15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비회원, 18홀, 1라운드)	24	18.8	노동 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5일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13,500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8 시간
13.3	골프공(1타)	49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250	19.1	법정최저자금	15,300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29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2,200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4.5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개인소득세)	-
14.1	의료보험료(4인 가족, Full Cover, 초과제외)	698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25
14.2	병원진료비(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25			
14.3	병원진료비(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8.5			
14.4	치과(스켈링, 1회)	24.8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0.6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28			
15.2	한국신문(1개월)	없음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37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18			
16. 호텔					
16.1	특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220			
16.2	특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10			
16.3	중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25			
16.4	중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85			
16.5	조식(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3			
16.6	조식(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1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788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385			

3. 바이어 발굴

현지 바이어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방법은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다.

- 1) 현지 광고
- 2) 현지 전시회 참가
- 3) 세일즈 출장
- 4) 바이어 Directory 및 DB 구입을 통한 명단 확보

1,2,3번의 경우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 어느 정도 관련시장 동향을 파악 후 진행단계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 효과적인 바이어 발굴을 위해 활용 가능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주재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료 Directory 및 DB를 활용하는 것이며 모두 스페인어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현지 관련 산업 협회 접촉을 시도해 볼 수 있으나, 영어 구사가 미숙한 관계로 영어로 된 이메일 송부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접촉시 사용을 권장한다.

가. 현지 주요 Directory 리스트

1) LOS DATOS.COM

- 발행사: LOS DATOS.COM LTDA.
- 금액: US\$ 400 / 연
- 형식: CD
- 주 수록 자료: 주요 현지업체 약 10,000개사 정보
 - 최근 5년간 수입/ 수출실적
 - 인근 라틴국 수입실적
 - 거시경제지표
 - 재무제표
 - 관세율
- 전화: 571-530-5295 / 팩스: 571-622-1941
- 홈페이지: www.losdatos.com
- E-mail: comercial@losdatos.com
- 담당자: Mrs. Carolina

2) BASE DE DATOS

- 발행사: 보고타 상공회의소
- 금액: 적립식 US\$100, 회당 US\$3
- 형식: 인터넷
- 주 수록자료: 보고타 상공회의소 등록 286,000업체
 - 업체별 기본데이터 (주소, 연락처 등)
 - 수입/수출상
 - 재무제표
- 전화: 571-594-1000 ext. 2735 / 팩스: 571-383-0690 ext. 2733
- 홈페이지: www.ccb.org.co
- 이메일: infoemp@ccb.org.co
- 담당자: Mrs. Norma Martínez

3) AFINE

- 발행사: AFINE S.A.
- 금액: US\$ 4000 / 연간
- 형식: CD-ROM
- 주 수록 자료: 현지업체 14,000 개사
 - 업체 기본데이터
 - 산업별 업체정보
 - 재무제표
 - 업종별 선두업체 정보
 - 업체 분석정보
- 전화: 571-6367904
- 팩스: 571-2565655
- 홈페이지: www.afine.com.co
- 이메일: ctellez@afine.com.co
- 담당자: Mr. Camilo Téllez

4) BACEX

- 발행사: 산업부
- 형식: 인터넷
- 금액: US\$ 180 / 연
- 주 수록자료: 1995년 이후 수출/수입상 정보
 - 업체 기본정보
 - 국별 수출정보
- 전화: 571-606-7676, ext. 1291
- 이메일: webmaster@mincomercio.gov.co
- 홈페이지: www.mincomex.gov.co
- 담당자: Mrs. Doris Cruz

5) BYINGTON

- 발행사: BYINGTON COLOMBIA S.A.
- 금액: US\$ 500 / 연
- 형식: CD-ROM
- 주 수록자료: 현지업체 10,000 개사 기본정보
 - 업체 기본정보
 -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 재무제표
 - Activos
- 전화: 571-325-5500
- 팩스: 571-349-7300
- 홈페이지: www.byington.net
- 이메일: servicios@byington.net
- 담당자: Mr. Diego Arboleda

나. 현지 주요 협회 리스트

1) ASOCIACION NACIONAL DE INDUSTRIALES – ANDI(공업협회)

- 주소: Carrera 13, 26-45, piso 6, Bogotá.
- 전화: 571-323-8500
- 팩스: 571-281-3188
- 홈페이지: www.andi.com.co
- 이메일: presidencia@andi.com.co , comercial@andi.com.co
- 협회장: Mr. Luis Carlos Villegas E.

2) FEDERACION NACIONAL DE COMERCIANTES – FENALCO(경제인협회)

- 주소: Carrera 4, 19-85, piso 7, Bogotá.
- 전화: 571-350-0600
- 팩스: 571-350-9424
- 홈페이지: www.fenalco.com.co
- 이메일: fenalco.comresidencia@andi.com.co , comercial@andi.com.co
- 협회장: Mr. Luis Carlos Villegas E.

3) ASOCIACION COLOMBIANA DE MEDIANOS Y PEQUEÑOS INDUSTRIALES – ACOPI(중소기업협회)

- 주소: Carrera 15, 36-70, Bogotá
- 전화/팩스: 571-320-4783 / 4 / 5
- 홈페이지: www.acopi.org.co
- 이메일: presidente@acopia.org.co
- 협회장: Mr. Juan Alberto Pinto S.

4) ASOCIACION NACIONAL DE EXPORTADORES – ANALDEX(수출협회)

- 주소 : Carrera 10, 27-27, INT. 137, OF. 902, Bogotá.
- 전화 : 571-342-0788
- 팩스 : 571-284-6911
- 홈페이지 : www.colombiaexport.com/analdee.htm
- 이메일 : analdex@colomsat.net.co
- 협회장 : Mr. Javier Díaz Molina.

5) ASOCIACION DEL SECTOR AUTOMOTOR Y SUS PARTES – ASOPARTES(자동차공업협회)

- 주소 : Carrera 28, 45^a-21, Bogotá.
- 전화 : 571-268-5901 / 268-4319
- 팩스 : 571-268-5905
- 홈페이지 : www.asopartes.com.co
- 이메일 : asopartes@solcol.com
- 협회장 : Mr. Tulio Zuloaga R.

6) ASOCIACION COLOMBIANA DE INDUSTRIAS DEL CALZADO, EL CUERO Y SUS MANUFACTURAS – ACICAM(신발가죽공업협회)

- 주소: Carrera 4 A, 25C-71, Bogotá.
- 전화: 571-281-6400
- 팩스: 571-341-8995
- 홈페이지: www.acicam.org
- 이메일: capitulo.bogota@acicam.org
- 협회장: Mrs. Marcela Cifuentes

7) ASOCIACION COLOMBIANA DE FABRICACION DE AUTOPARTES –ACOLFA(자동차부품협회)

- 주소: Carrera 13, 26-45, piso 6, Bogotá.
- 전화: 571-284-2409
- 팩스: 571-281-4157
- 이메일: acolfa@colomsat.net.co
- 협회장: Mr. Camilo Llinás

8) ASOCIACION COLOMBIANA DE INDUSTRIAS PLASTICAS-ACOPLASTICOS(플라스틱 공업 협회)

- 주소: Calle 69, 5-33, Bogotá.
- 전화: 571-346-0655
- 팩스: 571-249-6997
- 홈페이지: www.acolplasticos.org
- 이메일: informacion@acolplasticos.org
- 협회장: Mr. Carlos Alberto Garay

다. 전시장

1) CORFERIAS

- 주소: Carrera 40, 22-C-67, Bogotá.
- 전화: 571-381-0000
- 팩스: 571-482-2622
- 홈페이지: www.corferias.com.co
- 이메일: informacion@corferias.com.co
- 협회장: Mr. Hernando Restrepo Londoño

2)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현지 시장 특성상 온라인을 이용한 현지 바이어 발굴은 매우 제한적이며 현지 업체들의 경우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온라인 보다는 오프라인 방식의 바이어 발굴을 권장한다. 일부 거래알선 사이트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접할 수 있는 자료도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아래 사이트들은 어디까지나 바이어 발굴 및 거래를 위한 보조 도구나 기초 조사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3) 비즈니스관련 추천웹사이트

- 콜롬비아 포털사이트 모음
- 신문, 잡지
- 통관제도
- 유통
- 시장조사
- 거래알선사이트

4) 콜롬비아 포털 사이트 모음

- www.conexcol.com
- www.colombialink.com
- www.uol.com.co
- www.terra.com.co

5) 통관제도

□ 콜롬비아 세무관세청: www.dian.gov.co

콜롬비아 세무관세청 (La Direccio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홈페이지로서 각 세무 행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세금별 납부일자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99년 8월부터 통관 양식의 전산화로 수입 신고 등을 이 곳에서 할 수 있으나, 전산 작업은 통관 업체별 접근 코드를 입력해야 작업이 가능하다.

6) 시장조사

□ 중앙은행: www.banrep.gov.co

콜롬비아 중앙은행 (Banco de la Republica) 홈페이지로서 고시환율, 이자율 등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아울러 중앙은행 발간 자료의 일부도 입수가 가능하다.

□ 경제개발원: www.dnp.gov.co

콜롬비아 경제개발원 (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on) 홈페이지로서 경제 동향 및 전망 보고서를 수록 서비스하고 있다.

□ 중소기업 진흥원: www.microempresas.com.co

콜롬비아 중소기업 진흥원 (Corporacion para el Desarrollo de las Microempresas) 홈페이지로 주요 중소기업체 명단 및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 수출투자진흥청: www.proexport.com/home.htm

콜롬비아 수출투자진흥청 홈페이지로,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 안내 및 외국 수입상을 위한 콜롬비아 수출업체 디렉토리를 수록하고 있다. 참고로 과거 투자진흥청(Coinvertir)는 Proexport와 병합되어 대 콜롬비아 투자유치를 전개하고 있음

7) 산업 및 기업

□ 콜롬비아 YELLOW PAGE: www.paginasamarillas.com

콜롬비아 YELLOW PAGE를 발간하고 있는 PUBLICAR사 홈페이지로, YELLOW PAGE 수록 업체 검색, 품목별 검색이 가능하며, 동사에서 발간하고 있는 인근 중남미국 YELLOWPAGE도 수록하고 있다.

□ 인터넷 디렉토리: www.indexcol.com.co

콜롬비아 연금, 보험 관리 금융회사의 하나인 Colpatria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디렉토리로서 콜롬비아 주요 기업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별 연락처 상품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로 연결시켜 준다. 아울러 콜롬비아 주요 도시의 일기 예보도 서비스하고 있다.

□ 포장 산업 디렉토리: www.colombiapack.com

콜롬비아 Yellow Page 발간업체인 Publicar S.A.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서 콜롬비아 포장 산업 연보 형태를 갖고있다. 포장기계, 자재, 서비스 등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업체별, 상품별 검색이 가능하다

□ 교육 디렉토리: www.mundoeducativo.com

콜롬비아 Yellow Page 발간업체인 Publicar S.A.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서 콜롬비아 교육 산업 연보 형태를 갖고 있다. 교육서비스, 기자재 등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지역별, 기자재 상품별 검색이 가능하다.

□ 그래픽 디렉토리: www.colombiagraph.com

콜롬비아 Yellow Page 발간업체인 Publicar S.A.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서 콜롬비아 그래픽 산업 연보 형태를 갖고있다. 그래픽 관련기계, 자재, 서비스 등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업체별, 상품별 검색이 가능하다

□ 수출산업 디렉토리: www.colombiaexport.com

콜롬비아 Yellow Page 발간업체인 Publicar S.A.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서 콜롬비아 수출업체 디렉토리를 수록하고 있으며, 업체별, 상품별 검색이 가능.

8) 신문, 잡지

□ El Tiempo지 : www.eltiempo.com

콜롬비아 최대 종합 일간지인 El Tiempo지 홈페이지로서 주요 기사 검색이 가능.

□ Semana지 : www.semana.com

시사 정치 중심의 대표적인 주간지인 Semana지 홈페이지로 회사 소개, 구독 안내와 함께 지난 기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Dinero지 : www.dinero.com

경제 경영 중심의 대표적인 주간지인 Dinero지 홈페이지로 회사 소개 및 구독 안내와 함께 지난 기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El Colombiano지 : www.elcolombiano.com.co

콜롬비아 제2도시 메데진시 지역을 중심으로 발간되는 종합일간지인 El Colombiano지 홈페이지로 주요기사를 서비스하고 있다.

9) 통계, 자료

□ 정부기관 : www.sinpro.gov.co

알파벳 순으로 모든 정부 기관 홈페이지 목록을 제공하며, 해당 기관별 역할 및 민원 수속 절차 등을 소개하고 있다.

□ 증권회사 : www.corredores.com

콜롬비아 주요 증권 회사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로, 간략한 경제, 금융, 증권 소식, 주가 지수, 환율, 이자율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은행연합회 : www.asobancaria.com

콜롬비아 은행연합회(Asociacion Bancaria de Colombia) 홈페이지로 은행연합회 기능 소개, 회원소개, 그리고 연합회 발간 경제보고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 보고타 증권 시장: www.bolsabogota.com.co

보고타 증권 시장 홈페이지로 기능 소개와 시황, 업체 정보, 주가 등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 하고 있다.

□ 메데진 증권시장 : www.bolsamed.com

콜롬비아 제2도시인 메데진 증권시장 홈페이지로 수요서비스 소개와 시황, 업체정보 등을 수록, 서비스하고 있다.

□ 상공회의소 연합회 : www.confecamaras.org.co

콜롬비아 상공회의소연합회(Confecamaras : Confederacion Colombiana de Camaras) 홈페이지로 발간자료 안내, 회원사 정보, 인과이어리 정보, 전시회정보 등을 수록하고 있다.

□ 은행감독원 : www.superbancaria.gov.co

콜롬비아 은행감독원(Superintendencia Bancaria) 홈페이지로서 감독원 소개 및 주요 기능 설명, 그리고 금융부문 주요 통계, 지표 등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 통계청 : www.dane.gov.co

콜롬비아 통계청(DANE: Departamento Administrativo Nacional de Estadística) 홈페이지로서 각종 사회, 경제, 생산, 교역 등 통계를 수록하고 있으나, 후진국 공식통계기관으로서 최근 통계가 수록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10) 유통

- www.alkosto.com.co
- www.virtualexito.com
- www.carulla.com
- www.superley.com.co
- www.cadenalco.com.co
- www.ley.com.co
- www.pomona.com.co
- www.corabastos.co
- www.tia.com.co

11) 거래알선 사이트

- www.fenalco.com.co
 - 제조업, 유통업, 수출입상 등 그룹군별로 검색
 - 영어로 동시 검색 가능
- www.indexcol.com.co
 - 콜롬비아 최대의 업체정보 제공
 - 영어 동시검색 가능
- www.ccb.org.co
 - 기업체 일반정보 이외의 신용 정보(자본금, 매출액, 자산현황 등) 제공
 - 일부검색(신용정보 등)은 유료 정보.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문화적 금기사항

콜롬비아는 서구 사회의 일원으로 남녀 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의 사회 활동도 활발한 편이다. 따라서 정계에 여성 장차관도 많고, 대통령 후보로 나선 여성후보가 30% 가까운 지지를 받기도 한다. 한국업체의 콜롬비아 업체와 상담 시 책임자로 여성이 나타나는 경우를 쉽게 만나게 되며, 이 경우 상대를 책임자로 존중하는 자세와 함께 신사로서 여성에 대한 에티켓이 함께 요구된다.

콜롬비아는 전국민의 95%가 카톨릭 신자로 구성된 카톨릭 국가임에도 자유로운 사회제도, 그리고 일반적인 여성의 지위상승 등의 요인으로 독신, 이혼녀, 미혼모, 별거 등 다양한 결혼형태를 보유한 여성을 만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연령 및 결혼여부, 배우자 직업 등 사생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상대를 당혹하게 하는 것으로 금기시된다.

또한 콜롬비아는 마약, 치안불안, 밀수, 빈곤 등 많은 사회문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국민들은 자신들끼리 대화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 하면서도 외부의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치안불안에 대한 CNN 보도에 대해서, 그런 사건이 있기는 있었지만 사건을 지나치게 확대 보도하여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처음 만나는 상대와의 대화 시, 콜롬비아의 치안 불안, 정치상황 등에 대한 선부른 의견 개진은 삼갈 필요가 있다.

나. 수입관행

콜롬비아 수입 시장은 오랜 기간 선진국 기업의 현지 대리점을 통한 수입이 관행화되어 왔으며, 현지 수입상들의 외국에서의 직수입은 '92년 수입 개방 이후 이루어져 역사가 짧은 형편이다. 기존 수입 대리점들은 같은 근무 시간대에 동일 언어로 전화 또는 대면을 통해 주문을 접수하고, 기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며, 문제 발생시에도 A/S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지 실정에 대한 이해 없이 한국업체가 상담에 임할 경우 많은 시행 착오가 예견된다. 우선 가격 조건은 당연히 한국 제품이 탁월하므로 수입상의 구미를 당기지만, 상당수 수입상 들은 신용장 개설이니 통관이니 하는 절차에 문외한인 경우가 있으며 아울러 시간대 차이 및 언어의 차이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 무역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하고 있다. 여기에 물품상 착오나 하자가 발생하고, 이에 수출업체가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게 된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우선 기본적으로는 한국수출업체에서 콜롬비아 시장을 대체시장 내지는 일회용 시장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장래 유망시장으로 키워가겠다는 의지와 여타시장과 동등한 비중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도 물품 수출 시 제품의 가격뿐 아니라 향후 이러한 문제발생시 해결비용까지 감안한 가격을 제시하고, 향후 수입상의 불만 도출 시 이를 책임져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 기업들은 오랜 기간 동안 콜롬비아 시장에 진출, 지리적 인접성 및 진출 역사를 바탕으로 현지 수입상들과 외상 조건의 거래를 일반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수입상의 한국업체와 상담 시 경직된 지불 조건 요구를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업체의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들 선진국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 있지 않으며, 외상 거래는 위험한 시도로 보여진다. 따라서 초기 거래에서는 신용장 또는 일정 부분 사전 송금 등 대금 지불의 확보를 고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 거래를 통해 수입상의 신용이 확인될 경우 시장에서 수입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입상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 경우 수출 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거래 시 유의사항

콜롬비아 국민은 근본적으로 낙천적인 라틴 문화를 이어받고 있으며, 이러한 기질은 무역 거래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제품품질 및 가격에 만족하면, 자신의 자금능력, 무역 및 통관에 대한 지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거래에 동의하고, 그러다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면 또 쉽게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거래상담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일단 구두상 합의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상담에 임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법적 효력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합의사항은 문서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첫 거래일 경우 물품대금이 확보될 때까지 물품의 생산 및 구매는 미루어 둘 필요가 있다.

많은 한국업체에서 무역관에 요청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바이어가 상담 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다. 현지 출장을 통해 바이어와 상담하고 바이어가 “언제까지 대금을 송금할 테니 지금부터 물품을 준비해 달라”는 약속에 따라 물품을 생산해 놓았는데 송금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역관에서 접촉해 보면 대해 수입상은 아직 시장성을 검토하고 있다. 내지는 수입대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애매한 답변을 듣기 일쑤다. 한국업체의 주의가 요청된다.

또 한 가지 한국업체에서 콜롬비아 시장진출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콜롬비아 인들은 거래선을 쉽게 바꾸지 않는 보수적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 국민들이 아직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한국에 대해 지리적, 문화적 원격성을 느끼고 있어 한국과의 첫 거래에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날아온 거래제의 팩스, 서신, 카달로그 등에 수입상들이 큰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기관인 무역관에서 주선한 대면상담에는 수입상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업체의 콜롬비아 시장진출 시 시장조사와 수입상조사를 통해 시장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출장을 통한 방문상담을 추진해 볼만 하다. 아울러 방문 시 수입상 식사초대, 간단한 선물증정으로 친분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으며, 일단 친분관계가 구축되면 여타 경쟁국 제품 또는 경쟁업체의 거래제의에도 움직이지 않는 확실한 거래선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라. 상담 시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현지에서는 한국경제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상담 시 과잉기대를 하는 경향이 있어, 신용거래 및 독점대리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거래 및 대리점 영업은 콜롬비아 시장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관행이나, 초기 거래 시에는 일단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의 시장규모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수요량을 취합할 수 있는 대리점의 선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우선은 여러 업체와의 거래 경험을 통해 대리점을 선정하고, 상대의 신뢰도가 확인이 된 이후에는 수입상의 외상거래 요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송장(Invoice)상 물품대금의 Under Value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입상의 Under Value 요청에 대해, 밀수가 만연된 현지실정을 감안, 수출업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Under Value 목적상, 그리고 현지의 높은 금융 코스트로 인해 신용장보다는 T/T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경우에 따라 일부 T/T 송금, 그리고 나머지 잔액 신용장 개설을 요구하는 수입상도 있다.

아울러 세관의 부패로 수입물품이 세관에서 분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아울러 주요 항구에서 보고타 시까지 안데스 산맥을 넘어 500여Km를 내륙 운송하는 도중 화물의 도난 사고 위험이 크므로 딜리버리 상의 책임한계를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이주정착 가이드

가. 생필품

식품 이외의 생필품은 1990년 수입 개방 이후 외제 상품이 대거 현지에 반입되어 구입상 어려움은 별로 없다. 주로 EXITO, CARULLA, POMONA, CAFAM, OLYMPICA 등 대형 하이퍼 마켓 및 슈퍼 체인점에서 일반 생필품 구입이 가능하다.

가격수준은 환율 등에 영향을 받아 변동이 있으나, 대체로 제조산업이 부족한 공산품의 경우 대부분 수입되어 서울보다 비싸며, 채소, 과일, 육류 등은 서울보다 저렴한 편이다.

나. 한국식품

한국식품 중 채소 및 육류 구입은 불편이 없으나, 장류 및 양념, 젓갈류는 현지 조달이 불가하며 공항 통관 시 식품검사가 까다로워 외부로부터의 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보고타에는 한국 식당 및 ‘동양 식품’(636-1906)이 라면 등 한국 식품을 취급하고 있으나 작은 교포 사회 규모를 반영, 아직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가격도 비교적 높은 실정이다.

다. 여가활동

보고타 시 등 주요도시가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보고타시의 경우 평지보다 산소가 25%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산소량을 요구하는 테니스, 수영 등 운동은 한국 사람 에게 적합하지 않다.

콜롬비아에는 일반 도심에서 누구나 이용하는 위락시설은 식당, 디스코텍 등이 고작이며, 운동 및 레저 설비는 클럽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콜롬비아는 다양한 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며, 고소득층의 경우 회원권이 수 만 불에 이르는 컨트리클럽 외 다양한 회원제 클럽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반 중산층의 경우도 직장단위로 가입하는 클럽에서 축구, 수영, 볼링, 사우나 등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대개 직장인 클럽의 경우 일반인에게도 개방되며, 회원에게는 일정 할인율이 적용된다.

콜롬비아에 거주하는 한국사람의 경우 대부분 골프를 즐긴다. 보고타지역은 4계절이 없어 연중 파란잔디를 볼 수 있으며, 기온도 한국의 초가을 날씨가 지속되어 골프를 즐기기에 매우 쾌적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 가입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으로 클럽 별로 최소 2만불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며, 아울러 기존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회원이 아닐 경우, 기존 회원의 초청을 받아야만 클럽에 들어갈 수 있다.

아울러 콜롬비아 인들은 중산층 이상의 경우 시 외곽에 Finca(별장)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원생활을 즐긴다. 소득수준에 따라 일반주택, 수영장이 딸린 별장, 그리고 다양한 레저 시설이 완비된 클럽 식 별장 등 다양한 유형의 별장들이 있으며, 연휴가 시작되면 도시를 빠져나가는 차량,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은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으로 심한 교통체증이 야기 된다.

한편 콜롬비아 한인회(교민회)는 보고타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저지대(해발 500미터) Melgar 시에 공동 별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고지대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요청으로 한국 정부에서 구매, 교민회에 기증한 것으로 한국 교포의 경우 누구나 사전 예약만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라. 치안

콜롬비아의 치안 상태는 지속적인 불안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치안 불안의 주 요인은 마약과 게릴라 준동에 있다(주요 이슈 참조). 현지인들 중에서도 중산층 이상에서는 치안 불안을 심각 하게 느끼고 있으며, 여행 등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소련 붕괴 후 사상적 토대를 상실한 게릴라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무장 세력으로 변질되어 국민 대부분이 게릴라의 존재에 등을 돌린 지 오래이다. 이들은 마약 거래 및 시민 납치와 몸값 요구 등으로 엄청난 수익 얻으며 조직을 유지하는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주요 지방도로 일부를 점거, 차량을 세운 후 금품 및 차량 탈취, 납치 등을 자행하고 있어, 지방도시를 육로로 여행하는 것은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 보고타 시내에서는 게릴라 등의 위협은 없으나, 슬럼화된 시내 중심부 및 보고타 남부 지역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한 경우 일과 시간 중 활동이 요구된다.

마. 주거환경

한국인들은 보고타, 메데진, 페레이라, 깔리 등 주요도시에 분산되어 주거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보고타시에 거주하고 있다. 보고타시 주거환경은 비교적 환경이 양호한 편으로, 남부와 북부의 주거환경이 큰 차이가 있다. 중심부 및 남부는 통상 구 시가지(CENTRO, SUR) 라고 일컬어지며, 상가밀집 지역으로 도시범죄가 다발하고 환경이 깨끗하지 못한 편에 속한다. 반면 북부지역 (NORTE)는 신흥개발 주거지역으로 현대적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으며 주거환경이 쾌적하여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바. 한국인에 대한 인식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6.25 참전국으로 한국과의 혈맹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입장에서 유일한 해외파병 경험으로 매년 6월 25일은 콜롬비아 군의 주요 기념일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유대관계로 인해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은 없으며, 한국인은 근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제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며 UN 등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사. 교포사회

한인교포는 보고타시에 70가구, 메데진, 깔리, 페레이라 등 주요도시에 30세대로 총 100여 가구 35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단기체류자 50여 명을 합할 경우 총 400여 명의 한국인이 콜롬비아에 주거하고 있다. 한편 교포자녀 및 주재원 자녀를 위한 토요 한글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유치, 초등, 중등으로 6개반, 그리고 현지인을 위한 성인반, 아동반 2개반도 운영되고 있다. 한글학교 교사는 주로 대사관, 상사, 코트라 등 주재원 부인들과 유학생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아. 전화신청

전화의 경우 현지는 대부분의 건물 및 주택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임차인이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통상 이사를 할 경우에도 임대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용 전화료만 선납부하고 신규 임차 건물/주택에 설치된 전화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자동차 구입

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경우 선호 메이커 대리점에서 구입가능하며,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는 재직증명서(소득기재)가 필요 없으나 할부인 경우 재직 증명서(소득기재)와 더불어 근무 연수, 3개월간 은행 거래실적 사본, 월 급여 입금통장 사본 등의 제출이 요구되며 할부 이율을 약 20%(연)이다.

차. 은행구좌 개설

외국인의 경우에도 현지 은행구좌 개설하는 데는 별다른 차이는 없다. 아래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개설희망 은행을 찾아 개설절차를 밟으면 되고 은행에 따라 요구서류가 약간 상이할 수 있다.

- 필요 서류: 납세번호사본, 상공회의소 사업자등록증, 대표인신분증, 주주명부, 주주신분증, 자산 증빙서류

카. 병원

현지에서의 병원 이용방법은 사회건강보험 또는 일반 진료, 또는 선불제 민간보험, 세 가지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소득이 없는 하위계층을 위한 국가 전액 부담 보험제도 (Cisben)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1990년 사회건강보험의 운영을 민간기업에 개방하여 현재 건강관리공단과 민간 보험사가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선택은 피보험자가 선호하는 보험사를 선정하여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건강보험의 경우 국영이나 민간이나 보험사 별로 지정된 병원들이 틀리며, 지정 병원이나 약국에 한해서는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현지에는 제네릭 약품의 제조 및 판매가 합법적이라 사회건강보험 이용 시 처방해 주는 약들은 모두 제네릭 약품이고, 한번 진료를 위해서는 약 2~3주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부 계층을 위한 선불제 민간보험이 도입되었다.

선불제 민간보험의 경우 일정금액을 매월 선불하고 지정된 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용 방법은 동일하나 매월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관계로 피보험자의 경제력이 중상층 이상은 되어 한다. 선불제 민간보험의 경우 훨씬 빠른 시일 내에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처방해 주는 약도 정품이다. 따라서 콜롬비아 중상층의 경우 대부분 의무 사회 보험과 선불제 민간보험, 두 가지 모두를 가입하는 추세이다.

가입자 별 형태를 보면 건강관리공단에는 공무원들이 주로 가입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민간 보험사에 가입을 선호하고 있으며 주요 민간보험사는 아래와 같다.

- 주요 국영/민간보험사
 - Seguro Social(국영)
 - Humana Vivir(민간),
 - Cafam(민간),
 - Compensar(민간),
 - Cafe Salud(민간),

6.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특징

콜롬비아는 남위 4°~ 북위 12°에 이르는 적도선상에 위치해 있으며, 이에 따라 연중 열대의 다습한 적도성 기후를 보유하고 있고, 아울러 밤과 낮 길이가 연중 비슷하고 그리고 계절의 변화가 미미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 고도 4천미터의 안데스 산맥이 콜롬비아에서 세 갈래로 나뉘어져 남북으로 국토를 관통하며, 이에 따라 산악 및 계곡, 해안에 흩어진 주요 도시들은 고도에 따라 열대 우림 아마존에서 만년설까지 각각 다양한 기후대를 보이고 있다. 즉, 콜롬비아의 기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계절은 없고, 고도에 따라 특징 지워진 기온의 차이만 있는 것이다.

고도에 따른 기온의 변화를 보면, 우선 전국토의 81%에 이르는 지역이 해발 1000미터 미만에 위치해 있고, 카리브 및 태평양 해안지역, 아마존 정글지역, 그리고 산맥과 산맥 사이 계곡지역이 여기에 해당하며 연중 24℃ 이상의 열대성 기후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해발 1000~2000 미터 지역은 전국토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낮은 고원지대 내지는 산맥 기슭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서는 평균기온 17.5℃의 아열대성 및 온대기후가 나타나며 콜롬비아 주요 지방도시인 Cali시 및 Medellin시가 이 기후대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보고타시를 포함 해발 2000~3000 미터 지역은 전국토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기온 12℃의 온대기후를 보여주고 있고, 해발 3000미터 이상지역도 국토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지역에서는 평균기온 10℃ 미만의 한대 및 냉대기후를 보이고 있고, 4000미터 이상에서는 만년설이 형성되어 있다.

한편 강우량의 경우 지역에 따라 300~11,000mm까지 다양한 강수량을 보이고 있는데, 태평양 연안과 북부내륙 Magdalena 계곡지역, 그리고 동부 아마존 지역에서는 연평균 4,000mm 이상, 북부 해안지역 및 아마존 지역은 연평균 2,000~4,000mm를, 보고타시를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연평균 1,000~2,000mm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다.

2) 고지기후의 특성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는 해발 2,650미터에 위치, 고산 기후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연중 기후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3월부터 8월까지의 우기,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건기로 분류되고 있다. 우기란 비를 뿌리는 빈도수가 높다는 의미로 한국의 장마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최근의 엘니뇨 현상으로 수년간 우기와 건기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 보고타시 기후는 연중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와 같이 쾌적한 기후가 지속되고 있으나 낮에는 25~28℃, 그리고 아침에는 10℃ 정도로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보고타 시는 방대한 보고타 고원에 위치해 있는데, 이 고원은 해발 2,650 미터에서 보고타 시를 외곽 북쪽으로 100Km 이상 고도를 유지하며 평원을 이루고 있다. 지역 특성상 외부인이 방문하면 대부분 고산 증세를 느낄수 있다. 증세는 개인차가 있는데 주로 소화 불량 및 식욕 부진, 숙면 부족, 건망증 심화 등의 증세로 나타나며, 이에 대해 별다른 대처 방안은 없어서 과로 및 과식, 과음을 피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방법뿐이다.

3) 복장

한국의 가을 날씨에 맞게 준비하면 별 무리가 없다. 한국의 춘추복 수트 및 긴팔 셔츠, 그리고 아침 저녁 활동을 위해 점퍼 하나 정도를 준비한다. 콜롬비아는 난방 시설이라는 것이 없으며, 특급 호텔에서도 에어컨은 있으나 난방 장치는 전무하다. 이에 따라 한국 출장자 중에서는 밤새 추위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날씨는 선선하여도 적도 상에 위치, 햇빛이 매우 강렬하므로 출장 시 선글라스를 하나 정도 휴대하는 것이 좋다.

각 도시별 고도 및 평균기온

도시명	북위	해발	평균기온
Barranquilla	11°00′	4m	27℃
Bogota	4°32′	2,650m	14℃
Bucaramanga	7°08′	959m	23℃
Cali	3°27′	995m	24℃
Cartagena	10°26′	2m	28℃
Ibague	4°27′	1,285m	21℃
Medellin	6°16′	1,479m	21℃
Pereira	4°49′	1,411m	21℃
San Andres	12°35′	2m	27℃

자료원: 콜롬비아 기상연구소, Instituto Nacional de Meteorologia

나. 시차/근무시간

1) 시차

콜롬비아와 한국과의 시차는 14시간으로, KST-14 시간대로 분류된다. 즉, 한국이 24:00시 일 때 콜롬비아는 아직 10:00시이다. 계절의 변화가 크지 않아 썬머타임은 실시하지 않는다.

2) 근무시간

일반 사무실의 근무시간은 08:00~17:00이며, 관공서의 경우 대부분 15:00시에 근무 시간이 끝나므로, 관공서 업무는 가급적 오전에 끝내는 것이 좋다.

은행의 경우 보통 근무 시간이 08:00~16:00까지이며, 일부 은행은 09:00시에 개점하여 15:00~17:00 동안 휴식 후 17:00~19:00시까지 연장 업무를 보기도 한다. 매월 마지막 날 은행들은 결산 업무 관계로 오전까지만 고객들의 여수신 업무를 받아주고, 연말의 경우 12월 31일은 고객 업무를 보지 아니한다. 또한 아직까지 대다수의 콜롬비아 근로자들이 급여를 한 달에 2번 수령하고 있으며, 이 중 한 번의 급여일이 15일이어서, 매월 15일 및 월말은 은행이 가장 붐비는 시기로 은행 이용 시 동 일자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콜롬비아의 법정 근로시간은 48시간이나 매장 및 공장을 제외한 일반 사무실에서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3) 회계연도

콜롬비아 정부 및 기업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다. 도량형

1) 도량형

콜롬비아는 다양한 미국 및 영국식 도량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사용되는 도량형은 다음과 같다.

무게	Kg(1,000g)
	Libra(파운드, 453.59g)
	Onza(온스, 28.5g)
	Arroba(25파운드)
길이	M(미터)
용적	Metro Cubico (입방미터)
	Litro(리터)
	Barril(배럴, 159리터)
	Galon(3.785리터)
넓이	Metro Cuadrado(제곱미터)
	Hectarea(1,000 제곱미터)
	Fanegada(800 제곱미터)

2) 전기

가정용 및 상업용으로는 110볼트 60Hz 전기가 공급되고 있으며, 산업용으로 220볼트, 삼상전류 등이 공급되고 있다.

라. 비자

1) 비자면제협정

한국과 콜롬비아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90일 이내 단기 체류하는 관광객은 비자가 면제된다. 그러나 취업 및 유학목적의 장기체류자의 경우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체류기간 연장이 용이하다. 출국지에서 비자를 받지 않고 관광객으로 입국하여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할 경우, 첫 번째 비자는 주변국을 통해 받아야 하며, 두 번째 갱신 비자부터는 현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스페인어로 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비자를 발급 받더라도 6개월 내지 1년 비자를 받기 때문에 체류기간 중 연례적으로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아울러 비즈니스용 상용 비자가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거래 상담 목적의 출장 시 상용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출장기간이 짧다면 관광객으로 무비자 입국이 권고된다. 상용비자를 취득하고 입국한 경우에는 출국할 때 콜롬비아에서의 활동 내역을 문의하거나, 콜롬비아 내에 비즈니스 상 채무가 없다는 서약서를 요구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비자 입국의 경우, 입국 심사대에서 여행 목적이 관광인지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 때 입국 목적을 사업이라고 할 경우, 출국 시 추가 공항세를 납부해야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출국 공항세는 2007년 6월 현재 관광 목적 입국일 경우 US\$35 내외, 사업목적 입국일 경우 US\$58 내외이다. 또한 동년 6월 1일 이후 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콜롬비아 입국세 US\$5를 추가 납부하도록 출입국 관리 규정이 개정된 바, 사전인지가 요망된다.

2)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 연락처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13층
- 전 화: 02)720-1369
- 휴 일: 토, 일요일 및 양 국가의 공휴일
- 접수 시간: 09:00~12:00
- 구비서류: 여권, 건강증명서, 신청서 양식, 호적등본, 재산세 납부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등이 요구되나, 방문 목적 및 비자 종류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콜롬비아 대사관에 문의할 필요가 있음.

3) 이민국 및 세관통관

콜롬비아의 경우 이민국 통과 시 특별한 절차가 없으며, 별도의 출입국신고서도 작성하지 않는다.

세관통과 시에는 통과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 초록불이 켜지면 무검사 통과, 그리고 빨간불이 켜지면 검사대로 가서 세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검사 시 샘플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인보이스 및 샘플리스트, 그리고 샘플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고, 동 샘플에 해당하는 세금을 예치해야 하며, 출국 시 해당샘플을 재검사하고 예치금을 환불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세관원 재량에 따라 상품가치가 없는 샘플로 판단될 경우 통과시키고 있다.

한편 음식물류의 경우 세관의 요주의 검사품목이며, 아울러 동양 사람들이 식품을 많이 휴대하는 것에 착안하여 부패세관원들의 표적이 되고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 무관세 반입 한도
 - 서적, 잡지, 오디오테이프, CD: 품목당 6개
 - 주류: 6병
 - 사진기, 가전제품, 레저 용품 : 각 2개
- * 상기 품목별 반입 한도 이외 전체 반입품의 가격이 U\$1,500을 초과되지 않아야 함.

4) 예방접종

일반적인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콜롬비아에서 아마존 등 열대지역을 여행 또는 방문할 계획인 경우에는 황열병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의 경우 한국 등 여타국가에서 직접 도착하는 입국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콜롬비아에서 탑승한 입국자에게는 황열병 예방접종 카드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콜롬비아를 경유, 브라질 방문 예정인 출장자의 경우 한국에서 황열병 예방접종 및 접종확인서를 휴대할 필요가 있으며, 동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보고타 공항에서 탑승이 거부되어 낭패를 볼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황열병 예방접종의 경우, 보건소 및 공항에서 접종이 가능하며(유료), 예방접종을 맞고 10일 후에 접종확인서 (Yellow Card)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마. 환율/화폐

1) 화폐단위

콜롬비아는 화폐단위로 페소(Colombian Peso)를 쓰며 약칭으로 \$를 사용한다. 은행 거래 시 또는 회계상 센트(100분의 1페소)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화폐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50페소 동전이다. 주화로는 50, 100, 200, 500페소 동전이 유통 중이며, 50페소 동전은 점차 유통이 줄어들고 있다. 지폐의 경우 1,000, 5000, 10,000, 20,000, 50,000 페소 지폐가 유통되고 있다.

2) 환율

콜롬비아 페소화의 대미달러화 환율은 2007년 10월 현재, U\$1=1,90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동 환율은 정부에서 고시하는 시장대표환율로서 실제 환전소에서 적용하는 환율은 매입율 1,800, 매도율 2,00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콜롬비아 환율제도는 '99년 9월까지 관리변동 환율제도로써 정부에서 연간 평가절하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선 위아래로 상하한선을 설정, 상하한선 이내에서의 환율변동은 자유롭게 허용하는 한편 환율이 동 한계선을 벗어나려 할 경우 중앙은행에서 자동적으로 시장에 개입 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율관리 제도는 단기적으로 페소화 환율을 시장원리에 맡기면서 장기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환율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를 갖고 있으나, 최근 국제금융시스템의 불안에 따른 강한 외부적 충격에 대해 대응이 늦은 취약성을 안고 있어 국제 투기자금의 주요 공격목표가 되어왔다. 이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의 상하한선 환율관리제도 폐지론이 업계 및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었으며 결국 '99년 10월부로 자유변동환율제가 채택 실시되어오고 있다.

콜롬비아 페소화 환율은 지난 97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거의 30%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으나, 2003년에는 안정세, 2004년 들어서는 달러화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97년 초까지 1불당 1000페소 수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던 페소화의 대미달러화 환율은 97년 말 아시아 외환위기의 파급으로 단기간에 1300까지 상승했고, 98년에도 러시아 외환위기 등 대외적 변수의 영향으로 1500선까지 평가절하 되었다.

최근 콜롬비아 페소화는 전년 동기 대비 20%에 가까운 평가절상률을 보이고 있어, 달러 초약세화가 진행중이며, 이로 인해 수입여력 및 교역량이 크게 증대된 상황이다.

(2006.06 - 2007.05월)주요 평가절상 통화

통화	절상율
콜롬비아 페소화	19.10%
뉴질랜드 달러화	17.51%
슬로바키아 코로나화	17.49%
태국 바트화	13.46%
헝가리 포린트화	12.77%
이스라엘 셰켈화	12.09%
루마니아 레이화	11.49%
아이슬란드 코로나화	11.04%
파라과이 과라니화	10.89%
필리핀 페소화	9.94%

자료원: Bloomberg)

(2007년 1-5월)주요 평가절상 통화

통화	절상율
콜롬비아 페소화	11.91%
아이슬란드 코로나화	11.75%
인도 루피화	8.29%
브라질 레알화	6.51%
태국 바트화	6.46%
이스라엘 셰켈화	6.33%
터키 리라화	6.22%
루마니아 레이화	5.94%
호주 달러화	5.57%
슬로바키아 코로나화	5.42%

자료원: Bloomberg

3) 환전

콜롬비아는 연간 수십억불의 불법 마약자금이 유입되고 있으며, 정부의 마약근절 의지에 따라 미국 등 외국에서 유입되는 달러화에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콜롬비아는, 달러화의 유입은 묵인하면서 유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여타 대부분 국가와는 틀린, 특이한 환전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환전하는 공식환율보다 암시세 또는 일반 환전소 환율이 높은 것이 정상인데 콜롬비아에서는 반대로 은행환율이 시중 환전소 환율보다 더 높고, 아울러 은행에서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송금만 수령할 뿐 일반개인의 달러예금, 달러환전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관광객을 포함 일반인들이 콜롬비아에서 달러를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은, 공항에 소재한 은행사무소, 그리고 시중 환전소, 그리고 주요 호텔에서 환전하는 방법이다.

이중 달러화를 현지화로 바꿀 경우 공항에서 환전이 가장 유리하고, 현지화를 달러화로 바꿀 경우 환전소 환율이 가장 유리하다.

대부분의 경우 호텔에서는 고객에 불리한 환율을 적용하고 있어 호텔에서의 환전이 불가피할 경우 당장 필요한 소액만을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교통/통신

1) 항공노선

한국에서 콜롬비아까지 가장 단순한 노선은 서울-L.A.-보고타 노선으로서, 서울에서 L.A.까지 12시간(서울-L.A. 10시간 30분, L.A.-서울 12시간) L.A.에서 보고타까지 7시간, 총 19시간의 비행시간이 소요된다.

L.A.-보고타 노선 비행기들은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 중간기착지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직항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AVIANCA 항공사에서는 매주 목, 토, 일요일 L.A.에서 오후 9시에 출발, 보고타로 직항하는 항공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일 06:00 보고타 도착), 서울에서 L.A. 도착시간을 조정할 경우 L.A.에서 대기 시간을 줄여 환승할 수 있다. AVIANCA 사의 L.A.행 직항편은 매주 목, 토, 일요일 14:00분에 출발하여 L.A.에 19:45분에 도착한다.

콜롬비아 등 대부분 중남미 방문시 미국에서의 환승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중남미 방문시 미국 비자가 필요하다. 과거와 달리 무비자 환승이 불가능하니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망된다.

이 외 자주 이용되는 노선은 서울-아틀란타-보고타 노선(서울-아틀란타 주 3회 운항)이며, 미국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울-밴쿠버-토론토-보고타 (Air Canada) 또는 서울-파리-보고타 (Air France)노선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2) 육상교통

외국인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택시로서 시내에서 움직일 경우 대부분 1만 페소(US\$5.26) 정도, 공항까지 이동할 경우 2만페소(US\$13.15 내외) 정도로 가격수준도 그리 높지 않아 이용이 권장된다.

택시를 잡을 경우 호출회사에 전화를 걸어 택시를 부르는 경우와 그냥 지나가는 빈 택시를 잡는 경우가 있으나 지리를 잘 모를 경우 혹은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 택시를 부르는 것이 안전하다. 콜롬비아에는 별도의 콜택시가 없으며 일반 택시 기사들이 호출회사의 무전기를 임대 받아 호출회사의 지시로 손님을 확보한 경우 일정부분 커미션을 납부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 호출회사를 통해 택시를 부른 경우 동 회사에 연계기록이 남아있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보고타시의 택시 호출번호는 211-1111, 311-1111, 411-1111 등이 있다.

택시는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표시기에는 요금이 아닌 거리단위가 표시된다. 즉 출발할 때 25에서 시작해서 100미터마다 1단위씩 추가된다. 미터기의 1단위 가격은 35페소이고 기본요금 3,000페소가 적용된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단위별 요금표를 확인하여 요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택시를 호출한 경우, 야간 및 휴일 이용 경우, 외진 공항으로 이동 경우 등은 정상요금에 1000-2000페소를 더 지불하는 것이 통례이다.

미터기에 요금이 아닌 거리 단위로 표시되는 것은 인플레이를 겪는 후진국의 특성 중 하나로, 인플레이에 따른 가격 인상시 미터기를 바꾸기보다, 요금 환산표만 바꾸는 게 더 편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택시 이외에 노선버스가 이용되고 있으나 신변안전상 외국인 이용이 권장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노선을 번호로 표시하여 운행되기 때문에 버스선택이 쉽지 않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1~2차례 환승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콜롬비아는 도시간 이동 시 치안문제로 인해 필히 국내선 비행기 이용을 해야 한다. 현지인의 경우 일부 도시는 차로 이동을 하기도 하나 외국인의 경우 일반 강도 또는 게릴라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라 비행이 이동을 권장한다. 도시간 이동은 내국 항공사인 Avianca가 주로 이용되며, 도시별 이동비용은 Armenia까지 US\$263, Barranquilla US\$315, Cali US\$315, Medellin US\$315 내외이며, 이용시기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수이며 비수기인 경우는 1~2일전 예약하면 이용 가능하다.

3) 교통체증

보고타시의 교통체증은 심각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2003년 취임한 Luis Eduardo Garzon 보고타시장은 교통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보고타시의 교통문제 해결방안은 장기적으로 지하철건설에 모아지고 있으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아직까지는 도상 계획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타 시에서는 단기적인 교통문제 해결방안으로서 과감하게 출퇴근 시간대 2.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하루에 10대중 4대의 차량이 출퇴근 시간대(07:00~09:00, 17:00~19:00) 통행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보고타에서는 사람 만나는 약속을 할 때 우선 자신의 차량운행 가능성을 생각하고, 상대 차량의 운행가능성까지 확인하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 보고타 시내 2.5 부제 (현지어명: Pico y Placa)
 - 각 요일별로 번호판 끝자리수에 해당되는 차량은 오전 7~9 시, 오후 5~7 시 시내주행 금지
 - 월: 7 8 9 0, 화: 1 2 3 4, 수: 5 6 7 8, 목: 9 0 1 2, 금: 3 4 5 6

4) 통신시스템

콜롬비아는 전반적으로 낙후된 통신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울러 비싼 통신요금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 국제전화 코드는 005, 007, 009 등이 있으나 국영 통신회사에서 운영하는 009가 통화 성공률이 높다. 한국으로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009+82(한국)+2(지역번호) 그리고 전화번호를 누르면 된다. 한국까지 1분 통화요금은 2,166페소(U\$0.80)로 수신자부담으로 전화가 가능하다.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를 할 경우 교환을 통해야 하는데 국제교환 호출번호는 179, 159, 199등 3개이며, 교환을 호출 콜렉트콜을 요청하고 상대의 전화번호를 주면, 교환이 전화를 하여 요금부담 여부를 확인하여 통화를 연결시켜 준다.

한편 호텔 등에서는 한국까지 통화요금을 2배정도로 청구, 가급적 대화할 내용을 요약, 팩스로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부분 호텔에서는 사후 문제가능성을 들어 수신자부담 전화를 봉쇄하고 있다.

보고타 시내에서는 공항,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공중전화 발견이 쉽지 않으며, 동전식 공중전화와 카드식이 있으며, 주화식 공중전화의 경우 100페소 및 200페소 주화로 각각 1.5분, 3분 시내통화가 가능하다. 카드식 전화의 경우 개별 전화회사에서 설치하는 관계로 해당회사에서 발급한 전화카드만 이용하도록 되어있어 이용이 불편하다. 한편 콜롬비아는 지역별 빈부격차를 감안, 모든 공공요금을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 가정 및 사무실용 전화의 시내요금은 지역에 따라 분당 16~40페소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우편발송의 경우 현지 민간 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발송 가능하다. 우체국인 Postal이 있긴 하나 직접 우체국으로 내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정확성 등이 떨어져 기업의 경우 대부분 민간 택배업체를 이용해 우편물을 발송한다.

주요 민간 택배 업체로는 Top Envios와 Servientrega가 있는데 양 업체 모두 주요 지역마다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어 이용에 큰 불편함은 없으며 대량의 경우 직접 수거하기도 한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1~1kg)의 경우 보고타 내의 경우 2,100 페소, 보고타 외곽지역은 4,900페소 정도이며 대부분 익일에 도착된다. 국제소포의 경우 특사운송회사인 UPS, DHL, FEDEX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항공운송의 경우 우체국을 통해 발송가능하며 항공운송 기본요금(500g 이내)은 약 110,000페소이며 소요기간은 약 10일이다.

사. 호텔/식당

콜롬비아는 전국적으로 1,468개의 호텔이 등록되어 있으며 52,340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호텔객실은 주요 도시 및 관광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객실 수 기준으로 수도 보고타 지역에 15%, 북부해안도시로 국제회의등이 개최되는 Cartagena 지역에 10%, 제2지방도시인 Medellin시 및 Cali시에 각각10%, 그리고 San Andres 섬 및 Barranquilla, Santa Marta 등 지방도시에 각 5%씩 분포되어 있다.

주요 호텔

호텔명	주 소	전화/팩스
Bogota Plaza (☆☆☆☆☆)	Calle 100 No 18 a 30 Santafe de Bogota	571-6322200/ 571-6322237
Bogota Royal (☆☆☆☆☆)	Avenida 100 No 8 a Santafe de Bogota	571 2189911/ 571-2183261
Hotel Radisson (☆☆☆☆☆)	Calle 114 No 9 Santafe de Bogota	571 6295529/ 571-6295021
Hotel Dann (☆☆☆☆☆)	Av 15 No 103- 60 Santafe de Bogota	571 6350010/ 571-2823108
Hotel Belfort (☆☆☆☆☆)	Calle 17 No 40b 300 Medellin	574 3119171/ 574 3110776
Hotel Intercontinental (☆☆☆☆☆)	Calle 16 No 28-51 Medellin	574 2660680/ 574 2661548
Hotel Dann Carlton (Deluxe Collection)	Cra 2 No 1 -60 Cali	572 886 2000/ 572 893 4000
Hotel Intercontinental (☆☆☆☆☆)	Av Colombia No 2-72 Cali	572 8823225/ 572 8920712
Hotel Cartagena (☆☆☆☆☆)	Hilton Av Almirante Brion, Cartagena	575 6 650666/ 575-6-652211
Hotel Santaclara (☆☆☆☆☆)	Cra 8 39-29 Cartagena	575 6646070/ 575-6647010

○ 인터넷을 통해 콜롬비아 호텔정보를 얻으려면 다음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 www.ashotelera-bogota.com.co
- www.colombia-hotels.com.co

콜롬비아는 해안 지역, 산악 지역, 정글 지역 등 지역에 따라 발달한 다양한 음식 문화가 자리잡고 있으며, 여기에 유럽, 미국, 동양의 음식 문화까지 합쳐져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콜롬비아를 대표할 만한 음식으로 Carne Asada(바베큐)를 들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사무실이 밀집된 지역에는 간단한 점심식사를 전문으로 하는식당이 많은데, 이런 곳에서는 여기서는 Carne Asada에 감자, 샐러드 등을 곁들여 낸다. 가격도 3,000~5,000페소 정도로 저렴한 편이다.

보고타 지역의 토속 음식으로는 Ajiaco(아히아꼬)가 유명하다. 감자로 낸 국물에 닭고기, 옥수수 등을 넣어 끓인 것으로 한국의 영계백숙을 떠올리게 하며, 한국사람 입맛에도 별로 거부감이 없다.

보고타 지역의 음식 가격은 만만치 않다. 식당 및 음식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급 식당 및 일식당에서는 일인당 5만 페소 이상은 잡아야 한다.

한편 보고타 시내에는 3곳의 한국 식당이 운영 중이며, 2군데는 정식으로 식당으로 영업하는 곳이고 나머지 1곳은 가정집을 개조해 영업하고 있다.

□ 한국식당

- 한국관 (비원)
 - 주소: Cra 16 No 93 A 21 전화: (571) 2189063 / 2567894
 - 한국식당으로 다양한 메뉴 보유
- Arirang(아리랑)
 - 주소: Cra 13A No.97-47 전화: (571) 616-1400
 - 정식백반 전문 한국식당

□ 중국식당

- Casa China
 - 주소: Calle 109 No.16-43 전화: (571) 214-2731 / 0517
 - 전통 중국음식점임.
- Rincon de China
 - 주소: Cra 18 No.91-15 전화: (571) 618-3441
 - 전통 중국음식점임.

□ 일본식당

- Watagushi
 - 주소: Cra 12 No 83-17
 - 전화: (571) 218-0534
 - 고급 일식전문점으로 각종 정통일식을 맛볼 수 있음
- Hatsuhana
 - 주소: Cra 13 No.93A-27
 - 전화: (571) 236-3379
 - 대표적 일식 전문점으로 맛에 대한 평판과 함께 가격도 제일 비쌌.
- Sushigozen
 - 주소: Calle 93A No.14-11
 - 전화: (571) 257-0282
 - 철판구이 전문점으로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대중일식을 맛볼 수 있음

□ 현지식당

- Andres Carne de Res
 - 주소: Via Chia – Cota, Km. 6
 - 전화: (571) 8630122
 - 바비큐 전문점으로 가격은 1 인당 10 볼 내외임.
- Casa Vieja
 - 주소: Calle 116 No 20-50
 - 전화: (571) 2137855
 - Ajiaco 등 전통음식을 판매하고 있으며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음.
- Carbon de Palo
 - 주소: Avenida 19 No 106-12
 - 전화: (571) 2140450
 - 바비큐 전문점으로 시내에서 대표적인 Carne Asada 전문점이다. 한국 사람이 먹기에는 제공되는 음식 양이 많은 편이다.

□ 기타

- Andres Carne de Res
 - 주소: Calle 3 No.11a-56, Chia 전화: (571) 863-7880
 - 콜롬비아 북쪽 20km 가량 떨어진 Chia 에 위치한 식당으로 현지 매체는 물론 New York Times 등에도 수차례 소개된 바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 일반 음식점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큰 규모와 아기자기한 실내 인테리어, 다양한 오락, 문화 이벤트 등이 준비되어 있어 꼭 한 번 방문해 볼 만한 장소
- Club Colombia
 - 주소: Av 82 No.9-11
 - 전화: (571) 321-0704
 - 세련된 디자인과 실내 인테리어 등으로 유력 인사 및 연예인의 방문이 잦은 식당으로 품격을 갖춘 현지 식당을 찾는 출장자에게 적합
- Tramonti
 - 주소: Cra 1ª No 93-50
 - 전화: (571) 2182400
 - 이태리음식 등을 취급하는 분위기 있는 식당으로 산기슭에 위치하여 보고타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음.
- Las Cuatro Estaciones
 - 주소: Cra 8ª No 98-38
 - 전화: (571) 2569309
 - 스페인 요리 전문점
- La Fragata
 - 주소: Diag 127ª No 20-36 전화: (571) 2746527

- 해산물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고급 음식점으로서, 식당 전체가 회전하며 보고타 북부 전망을 보여준다.

아. 관공서 관행

1) 민원 처리기간

콜롬비아 관공서는 민원 사안별로 내부적 처리기간(보통 2일~15일)을 명시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처리기간이 준수되고 있다. 그러나 후진국 특성상 민원부서의 부패는 존재하며, 사소한 기재사항 실수, 기타 사항을 트집잡아 접수를 거부 내지는 서류를 반송시켜 처리를 지연시키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서류 준비 시 사전에 준비할 사항을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서류작성시 절차를 잘 아는 안내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관공서 민원 창구는 민원인으로 붐벼, 차례를 기다리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한번 접수를 거부 당하면 당일 처리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민원 안내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관공서 업무가 있을 경우, 사전에 www.sinpro.gov.co 페이지를 방문, 해당정보 게재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 인터넷 페이지에는 주요 공공기관 리스트와 기관별 민원절차 등이 설명되어 있다.

2) 관공서 방문 시 유의사항

콜롬비아 관공서는 대부분 09:00~14:00시까지 민원을 접수하며, 13:00~14:00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접수를 받지 않는다. 오후 시간에는 많은 민원인으로 붐비므로 가급적 업무 시작 시간에 맞춰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부분 관공서에서는 아직 외국어를 구사하는 인력이 없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통역을 대동하는 것이 좋다.

민원 업무가 많은 관공서 업무를 해결할 때는 주로 대행업자를 통한 처리가 일반적이다. 중개인 이용 시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지만, 업무 노하우, 그리고 담당 관리와의 교분 관계 등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개인이 처리할 때보다 진행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다. 특히 세관, 국가보안국(DAS), 교통국 등에 대한 업무는 제출 서류 및 절차 등이 까다로워 대행업자 활용이 권고된다.

대행업자 이용 시 주의할 점은 대행업자 각자의 능력 차이가 있으므로, 능력이 검증된 대행업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업무 의뢰 시 필요한 서류 원본 일체와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신원이 확실한 대행업자에 업무를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복잡한 수속 대행을 조건으로 접근하여 사기를 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대행업자에 업무 의뢰 시,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자신의 수수료 외에 급행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아무런 영수증이나 근거 없이 지불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유경험자를 통해 필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밀수, 마약, 게릴라 등 문제해결에 공무원 부패가 주요 장애물의 하나라고 인식, 정부기관 부패척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관광, 투자 등 외국인 대상 민원기관에서부터 본연의 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으며, 점차 세관 등 여타 기관으로 정화노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자. 공휴일

1) 휴일 지정방식

콜롬비아는 공휴일은 중앙정부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기념일 및 축제일등을 지정, 시행하고 있으니 이러한 기념일 등은 휴일이 아닌 정상 근무일이며, 해당지방에서만 시행된다는 면에서 공휴일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노동절, 독립기념일, 크리스마스 등 일부 공휴일을 제외한 휴일이 주중에 위치할 경우 이를 다음주 월요일로 이동시켜 연휴로 만듦으로써 국민들의 여가선용을 돕고, 호텔 등 관광부문을 진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도 공휴일 일정표

신정(LA Circuncion)	01.01
주현절(Reyes Magos)	01.08
성요셉축일(SANJOSE)	03/19
부활절주간(SEMANA SANTA)	04.05(6)
노동일(DIA DEL TRABAJO)	05.01
예수승천일(ASCENCION Del SENOR)	05.21
성체기념일(CORPUS CHRISTI)	06.11
예수성심제(SAGRADO CORAZON DE JESUS)	06.18
성베드로 및 바울의날(SAN PEDRO Y SAN PABLO)	07.02
독립기념일(INDEPENDENCIA NACIONAL)	07.20
독립전쟁기념일(BATALLA DE BOYACA)	08.07
성모승천일(ASUNCION DE LA VIRGEN)	08.20
민족의날 (FIESTA DE LA RAZA)	10.15
만성절(TODOS LOS SANTOS)	11.05
까르따헤나독립기념일(INDEPENDENCIA DE CARTAGENA)	11.12
성모수태일(INMACULADA CONCEPCION)	12.08
성탄절(NAVIDAD)	12.25

2) 출장지양기간

콜롬비아는 법정 근로시간으로 48시간을 채택하고 있으나 상점 및 공장을 제외한 일반 사무실에서는 대부분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어, 출장일정에 토요일이 낄 경우 상담을 계획하는 것 보다는 시장조사 또는 휴식일정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활절 및 성탄절은 콜롬비아의 양대 휴가시즌으로서 동 휴일을 전후해 1~2 주 정도는 출장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콜롬비아 근로자의 법정 휴가일 수는 근무일 기준 15일로서, 주말까지 감안하면 3주가 되고, 여기에 일부 근로자들은 전년도 미사용 휴가까지 활용 1달씩 휴가를 실시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 연시, 그리고 부활절 연휴기간과 연계하여 휴가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방학하는 7월 중순~8월 중순 기간도 일부 휴가시즌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출장 시 사전에 상담가능성을 타진하고 출장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 여행시 유의사항

1) 기후 및 복장

콜롬비아는 적도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나 험준한 안데스 산맥이 국토를 관통, 수도 보고타시를 비롯한 주요도시가 고산지역에 위치해 있어, 콜롬비아 출장 시 목적지의 해발과 기온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고타시는 해발 2,650미터에 위치해 있으며, 연중 우리나라의 10월 날씨를 유지한다. 서울의 춘추복 정도면 무난하며, 일교차를 감안하여 점퍼를 하나 정도 추가로 가져오는 것이 좋다. 한편 제2도시 Medellin시의 경우, 해발 1,480미터로서 우리나라의 5월 날씨에 맞추어 복장을 준비하면 된다. 한편 제3도시 Cali시의 경우 해발 995 미터로서 우리나라 7,8월의 날씨와 유사한 기후를 보이고 있으며 반소매 셔츠와 가벼운 의복이 좋다.

2) 전압

가정 및 호텔, 사무실 등에서는 60Hz, 110V 전력을 사용하고 있으니 가전제품 휴대 시 주의가 요망되며, 220V 가전제품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승압기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3) 치안

콜롬비아는 미국에서 자국민 여행자제국으로 분류할 정도로 치안이 불안한 상태에 있으며, 여행시 주의가 요구된다. 현지인들 역시 치안에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인들과 가급적 시비 및 언쟁을 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고타 중심지는 슬럼화되어 많은 빈곤층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가급적 동 지역 방문 및 야간활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안내인을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일과시간 중에도 외출 시 귀금속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길거리에서 돈을 지불할 경우 지갑을 펼쳐 돈을 보여주는 것은 위험한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아울러 차량으로 이동 중 신호등 등으로 차가 정차할 경우 창문을 올려놓는 것이 안전하다.

4) 택시 사용

시내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소만 제시하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다. 거리에서 빈 택시를 잡을 수도 있으나 가급적 전화로 호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교통/통신 참조).

5) 긴급연락처

콜롬비아 체류 중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몇 가지 연락처는 메모하여 휴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요 응급용 전화번호로는 다음과 같다.

- 경찰: 112
- 소방서(구조): 119
- 앰بول런스: 115

아울러 한국대사관 및 KOTRA, 교민회장 자택 전화번호 등도 응급 시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용한 연락처 참조)

6) 팁

호텔 및 공항에서 포터가 짐을 옮길 경우 여행용 가방 1개당 1,000페소 정도의 팁을 지불하면 된다. 음식점에서는 서비스요금으로 10%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서에 서비스요금 포함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금액에 따라 5~10%의 팁이 관행화 되어 있다.

택시에서는 반드시 팁을 줄 필요가 없으나, 미터기로 요금을 계산할 경우 100페소 단위 거스름돈은 팁으로 주며, 일부 기사들은 일부러 잔돈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택시로 시외를 방문할 경우, 미터기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호텔 택시 등은 사전에 요금을 흥정해야 하며 팁은 줄 필요가 없다.

7) 식수

보고타의 수도물은 식수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산층 이상에서는 생수를 구입하여 마시고, 저소득층에서는 수도꼭지에 간단한 정수기를 부착하여 정수된 물을 마시고 있다. 따라서 콜롬비아 출장 시 생수(Agua Mineral)를 사서 마시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8) 이발소

시내 곳곳에 이발소(Peluqueria)를 발견할 수 있으며 요금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7,000~10,000페소 내외이다. 콜롬비아 이발소는 한국과 달리 대부분 이발 후 머리를 감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9) 구두닦이

직장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사무실 거리의 노상에 구두닦이가 발견할 수 있으며, 이들은 도로화단 등에 방석을 깔아놓고 손님을 기다린다. 구두를 닦는데 정해진 가격은 없으며 보통 2,000 ~ 3,000페소를 요구한다.

10) 쇼핑

보고타 시내중심에는 San Andresito(일명 밀수시장)라는 재래시장이 있어 가전과 섬유 제품을 중심으로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곳은 콜롬비아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각종 밀수품들이 저가에 판매되고 있어 보고타 서민들의 주요 쇼핑 장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지실정을 잘 모르는 방문객의 경우 안내인 없이 방문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고타 시민 중에서 중류층 이상에서는 슈퍼마켓 내지는 하이퍼마켓, 그리고 백화점에서 필요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보고타시내에 주요 하이퍼마켓으로는 EXITO, Carrefour, HOME CENTER 등이 있으며, 그리고 한국의 백화점 식으로 다양한 매장이 입주해 있는 곳으로 Centro Comercial Andino, Unicentro, Hacienda Santa Barbara 등이 있다.

11) 에머랄드와 커피

콜롬비아는 세계 에메랄드 시장의 80%를 공급하는 최대 생산국으로, 한국으로도 많이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모양이라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보석에 대한 조예가 없을 경우 바가지를 쓸 가능성이 있으니 안목있는 안내인의 도움을 받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콜롬비아는 브라질과 함께 주요 커피 수출국으로, 브라질 커피에 비해 향과 맛이 순해 원두 커피로 많이 소비된다. 가격에 비해 부피와 무게가 많이 나가 여행객의 휴대에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 출장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귀국 선물용품이 되고 있다.

카. 유용한 연락처

관공서

기관명	주소	전화/팩스	인터넷
국가보안국(DAS)	Calle 100 No 11b 28	610-7315 610-7315	www.sinpro.gov.co
관광부	Calle 28 No 13 A 15	352-2102 284-3009	www.sinpro.gov.co/mindesarrollo
관세청(DIAN)	Cra 7 No 6 -45	342-8700 283-5324	www.dian.gov.co
노동부(이민국)	Avenida 19 No 6-68	283-7025 283-7025	www.sinpro.gov.co/mintrabajo
국가기획청(DNP)	Calle 26 No 13-9 P iso9	334-0225 281-3348	www.dnp.gov.co
대외무역부	Calle 28 No 13 ^a 15 Piso7	286-9111 349-908	www.mincomex.gov.co

은행 및 경제단체

기관명	주소	전화/팩스	인터넷
중앙은행(국제부)	Calle 16 No 6-66 Piso17	284-9572 284-2701	www.banrep.gov.co
은행감독원	Calle 7 No 4-49	280-0280 280-0864	www.superbancaria.gov.co
경제인연합회(ANDI)	Cra 13 No 26 - 45	281-0600 281-3188	www.andi.com.co
대외무역은행 (BANCOLDEx)	Calle 28 No 13 a 15 Piso40	341-0677 282-5071	www.bancoldex.com
기업감독원	Av El Dorado No 46 -80	222-0566	www.supersociedades.gov.co
투자진흥청 (COINVERTIR)	Cra 7 No 71-52 Torre A Oficina 702	312-0317 312-0318	www.coinvertir.org.co
산업진흥원(IFI)	Calle 16 No 6 -66	336-0377	www.ifi.gov.co

한국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팩스	인터넷
한국대사관	Calle 94 No 9-39	616-7200 610-0338	http://www.mofat.go.kr/ek/ek_a002/ek_coco/ek_04.jsp
한인회	-	337-6877 337-5532	www.hancol.org

타. 관광명소**1) 보고타시 주변****□ 소금성당**

보고타 시 북부 Zipaquira시에 위치해 있으며, 소금 암반으로 이루어진 산속에 거대한 지하성당이 건축된 곳이다. 지표면에서 170미터 아래 지하에 미사를 볼 수 있는 성당을 만들어 놓고 성당까지 이르는 길에 예수 고난을 상징하는 12처소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곳은 스페인 정복 이전부터 바다를 모르던 원주민들이 염분을 채취하던 곳으로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도 소금 채취가 지속되었다. 표면에서의 염분 채취는 점차 광산으로 발전하여 산을 파들어 가는 본격적인 광산으로 개발이 되었으며, 광부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빌기 위해 광산 입구에 마리아상을 세우고 기도하는 장소를 마련하였다

194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기업 활동으로 광산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산 내부로 폭 10미터, 높이 16미터에 이르는 소금 암반을 파낸 갱도가 이곳 저곳으로 얹혀있는 것을 보게 된다. 1990년대 들어 소금 광산의 관광 산업적 가치를 발견한 현지 정부 및 기업에서 공동출자를 통해 이 곳에서의 소금 생산을 중단하고 거대한 성당으로 탈바꿈하는 공사를 시작, 1995년에 완공하여 일반에 공개되었다. 입장료는 일인당 8,000페소이다.

□ Monserrate

보고타시 중심부 동쪽에 해발 3,200미터(보고타시 자체가 해발 2,650미터에 위치해 있으므로 보고타시에서 보면 그리 높지 않은 산임.)의 작은 산봉우리에 성당이 세워져 있으며, 성당까지 케이블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역시 예수고난을 상징하는 처소를 만들어 놓아,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찾고 있으며 아울러 보고타시 전체를 조망하는 전망대로서 시내 주요 관광지가 되고 있다.

□ Bolivar 광장

보고타시 시내 중심부에 스페인시대 건축물이 보존되어 있는 공간으로, 광장을 중심으로 콜롬비아 의회, 대법원, 대통령궁, 보고타시청, 대성당 등이 위치해 있어, 콜롬비아의 정치 중심지를 구성하고 있다.

광장 중심에는 콜롬비아뿐 아니라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파나마까지 스페인 식민지에서 해방시키고 “중남미 독립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Simon Bolivar 동상이 세워져 있다.

한편 Bolivar 광장 부근에는 Candelaria라는 지역이 있으며, 이곳은 일반 주택가임에도 불구하고 목재발코니, 석재타일을 깔아놓은 좁은 포장도로 등 식민지시대 건축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문화적, 역사적 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다.

2) 보고타시 이외 지역

콜롬비아는 험준한 안데스 산맥이 적도를 지나는 지역에 위치, 아마존에서 만년설까지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의 천혜의 휴양지인 카리브해와 접해 있어 관광 부국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력 부족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미흡, 그리고 산악 및 정글지역에 포진한 게릴라의 위협 등으로 관광산업은 크게 위축된 상태에 있다.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카리브 해안지역으로, 카리브 해안을 따라 백사장과 호텔이 펼쳐져 있는 Santa Marta, 스페인 정복대의 중남미정복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여 오래된 성벽과 많은 유적지가 남아있으며, 국제회의 개최 등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Cartagena, 그리고 Nicaragua와 영유권 분쟁이 잠재된 상태에서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는 San Andres 섬 등이 주요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아울러 콜롬비아 6개주를 포괄하는 방대한 지역에 아마존 정글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콜롬비아의 아마존 지역은 남한의 4배에 이르는 403,000Km로 콜롬비아 국토와 비교해서도 35%에 이르고 있다. 아마존강 유역은 지구의 허파로 비유될 정도로 태고의 자연이 보존되어 인류가 필요로 하는 산소를 방출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국경이 접한 아마존 상류지역은 가장 보존상태가 양호한 지역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동식물류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